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양 보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선 후기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東國地圖)》 연구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이 영 선

조선 후기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東國地圖)》 연구

양 보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 리 학 과  
이 영 선

# 인 준 서

이영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조선 후기 정상기형 《동국지도(東國地圖)》는 축척을 적용하여 국토 윤곽의 정확성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백리척을 사용하여 각 군현의 거리를 지도에서 파악이 가능하도록 만든 지도이다. 정상기형 《동국지도》는 대축척이 적용된 조선전도 및 도별지도로 조선후기 대축척 조선전도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동안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로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정확한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 대상 지도인 《동국지도(東國地圖)》는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상기형 《동국지도》이며, 현존하는 정상기형 《동국지도》 사본 중 유일하게 방안이 표시되어 있고 방안의 수치를 갖고 있는 지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상기형 《동국지도》 중 지도 위에 방안이 그려진 《동국지도》를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라 명명하였다.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는 《대동여지도》의 제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는 정상기형 《동국지도》의 원도 계열에 속한다. 지도에는 2.7 cm 간격의 방안을 갖고 있으며, 한 방안이 40리를 나타내고 있다. 지명으로 제작 시기를 추정할 경우 1830년대에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도에는 산천 등의 자연적인 지리정보 뿐만 아니라 봉수(烽燧), 산성, 역(驛) 등과 같은 군사·행정적인 정보가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팔도(八道)에 일정한 기호로 그려져 있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를 알기 쉽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팔도지도(八道地圖)》와의 비교를 통하여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계열을 확인하고, 지도에 나타난 지리 정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과정에서 《팔도지도》의 각 도별도에 나타난 읍치 및 지리 정보를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도별도와 비교하였다.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같은 방안식 지도는 조선 후기에 주로 군현지도로

편찬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지도는 조선 전기보다 정확성을 추구한 지도로 《대동여지도》로의 발달 과정에 있는 지도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연구에서는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방안체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와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선정하였다. 《해동여지도》는 19세기 초에 제작된 방안식 군현지도집으로 20리 간격의 방안을 갖는 지도이다. 방안의 외곽에 숫자를 기입하여 각 군현의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도별도나 전도로 이어 붙 경우에 편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해동여지도》의 경기도·충청도·전라도 일대를 도별도로 이어 붙인 뒤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 《해동여지도》와 《동국지도》의 군현 읍치 비정이나 국토의 윤곽 표현에서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동여지도》와 비교한 경우에도 해안선의 표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지도에 나타난 국토의 윤곽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규장각 소장 《팔도지도》, 성신여대박물관 소장 《대동여지도》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여(東輿)》를 선정하여 비교를 시도하였다. 각 지도의 해안선 윤곽을 비교한 결과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는 정상기형 《동국지도》 유형인 《팔도지도》의 국토 윤곽과 유사하였으며, 《동여》 및 《대동여지도》와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는 백리척이라는 축척이 반영된 정상기형 《동국지도》에 40리 간격의 방안을 그린 지도임을 확인하였다. 《해동여지도》 및 《대동여지도》계열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선행연구에서 정상기형 《동국지도》는 《대동여지도》 제작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동국지도》는 《대동여지도》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차 례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방법 .....	4
3. 선행 연구 .....	6
II. 조선 후기 정상기형 《동국지도(東國地圖)》와 방안지도 .....	11
1. 정상기형 《동국지도(東國地圖)》의 제작 .....	11
2. 정상기형 《동국지도》의 발달 .....	18
3. 방안지도의 제작 .....	28
III.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東國地圖)》의 제작 .....	33
1.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東國地圖)》 개요 .....	33
1) 〈기호(畿湖)〉 .....	33
2) 〈해서(海西)〉 .....	34
3) 〈호남(湖南)〉 .....	34
4) 〈영남(嶺南)〉 .....	35
5) 〈관동(關東)〉 .....	39
6) 〈관북(關北)〉 .....	40
7) 〈관서(關西)〉 .....	40
8) 〈관남(關南)〉 .....	40
2.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계열 .....	47

IV.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東國地圖)》의 방안 체계와 특징 .....	57
1.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와의 비교 .....	59
2.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와의 비교 .....	63
V. 국토의 윤곽 비교 .....	65
VI. 결 론 .....	72

참 고 문 헌

ABSTRACT

## 표 차례

표 1. 방안식 군현지도 .....	30
표 2. 방안식 《동국지도》의 도엽별 제작시기 추정 .....	46
표 3. 정상기형 《동국지도》 사본의 소장과 계열 비교 .....	47
표 4. 《동국지도》와 《팔도지도》(奎10331) 경기도 및 충청도 읍치비교 ....	53
표 5.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 도별 방안체계 .....	57

## 그 립 차 례

그림 1.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 .....	11
그림 2. 고려대박물관 소장 《조선전도(朝鮮全圖)》(D129) .....	14
그림 3. 《동국지도》〈관북〉백리척 부분도 .....	16
그림 4. 《팔도지도》(古軸4709-48)〈함경북도〉중 황윤석의 발문. ....	18
그림 5. 《동국팔로분지도》(65) 표지 및 범례 .....	20
그림 6. 《동국팔로분지도》(65)〈충청도〉 .....	21
그림 7. 《조선전도》(D129), 《팔도지도》(奎10331), 《동국지도》(53) .....	23
그림 8. 《팔도지도》(奎10331)〈경기부충청도〉태안반도 세부도 .....	24
그림 9. 《동국지도》〈기호(畿湖)〉 .....	36
그림 10. 《동국지도》〈해서(海西)〉 .....	37
그림 11. 《동국지도》〈호남(湖南)〉 .....	38
그림 12. 《동국지도》〈영남(嶺南)〉 및 부분도 .....	39
그림 13. 《동국지도》〈관동(關東)〉 .....	42
그림 14. 《동국지도》〈관북(關北)〉 .....	43
그림 15. 《동국지도》〈관서(關西)〉 .....	44
그림 16. 《동국지도》〈관남(關南)〉 .....	45
그림 17. 《동국지도》〈관서〉부분도 .....	49
그림 18. 《동국지도》〈호남〉중 제주도 부분도 .....	50
그림 19. 《동국지도》〈호남〉중 백야곶 부분도 .....	50
그림 20. 《동국지도》〈기호〉중 안면도 부분도 .....	50
그림 21. 《팔도지도》(奎10331)와 《동국지도》의 비교 (경기·충청도) .....	52
그림 22. 《팔도지도》(奎10331)와 《동국지도》의 비교 (함경북도) .....	54
그림 23. 《팔도지도》(奎10331)와 《동국지도》의 비교 (전라도) .....	55
그림 24. 《동국지도》를 연결한 모습 .....	58

그림 25. 《동국지도》 〈호남〉과 《해동여지도》(古貴2107-36) 비교 .....	60
그림 26. 《해동여지도》(古貴2107-36) 전라도 일대 해안선 .....	61
그림 27. 《동국지도》 〈호남〉 부분도 .....	62
그림 28. 《대동여지도》(47) 제18첩, 제19첩 부분도 .....	64
그림 29. 《동국지도》중 〈호남〉 부분도 .....	64
그림 30.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팔도지도》의 국토 윤곽 비교 .....	66
그림 31.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동여》의 국토 윤곽 비교 .....	68
그림 32.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대동여지도》의 국토 윤곽 비교 .....	69
그림 33. 《동국지도》, 《팔도지도》, 《동여》, 《대동여지도》의 국토 윤곽 비교 .....	70

# I. 서론

## 1. 연구 목적

조선 전기까지는 도별지도나 전국지도가 많이 제작되었고, 대부분 소축척(小縮尺) 지도로 제작되었다. 이후 조선 후기에는 대축척(大縮尺) 지도가 발달하였으며, 방위와 거리가 적용된 방안 지도가 출현하였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대축척지도는 전국지도, 도별지도, 군현지도 등의 모든 유형에서 제작되었으며, 지도의 크기가 대형화되고 지도에 표시되는 지리 정보도 상세해지고 풍부해졌다.<sup>1)</sup>

조선 후기에 제작된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일정한 축척을 사용하여 도별 지도를 합하면 전도가 되도록 고안되었다. 백리척(百里尺)이란 단위의 축척을 사용한 이 지도는 지도상에서 실제 거리의 파악이 가능한 지도로 18~19 세기를 대표하는 도별지도이다.<sup>2)</sup> 이 지도는 조선 후기 실학파인 정상기(鄭尙驥)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그의 자손들에 의해 전사 및 수정되었다. 필사본으로 제작된 정상기형 《동국지도》는 현재 다양한 계열의 사본들로 현전하고 있다.

정상기형 《동국지도》는 대축척이 적용된 조선전도 및 도별지도로 조선후기 대축척 조선전도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동안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로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정확한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정상기형 도별도는 조선 팔도(八道)를 그린 지도이다. 일반적으로 경기·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도, 황해

1)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pp.354~356.

정척과 양성지의 《동국지도》형 지도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조선전도(朝鮮全圖)》,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로 추정된다.

2) 양보경, 2004, “테마기행 지도이야기-제6회 도별지도”, 측량, 한국측량협회, p.67.

도 지도로 구성되어 있고, 함경북도 지도에 백리척이 그려져 있으며 정상기의 발문이 전사되어 있는 경우 정상기형 《동국지도》라고 부른다. 정상기형 《동국지도》는 이전 시기의 지도에 비하여 조선 북부지방의 윤곽이 더 정확해지고 도로·봉수·산천 등의 기록이 상세히 표현된 것이 특징이다. 이 지도는 필사본으로 제작되어 지도 내에 많은 지리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정상기형 《동국지도》는 조선 후기까지 지도 제작에 큰 영향을 주었고, 여러 종의 필사본 지도가 남아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팔도지도(八道地圖)》와의 비교를 통하여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계열을 확인하고, 지도에 나타난 지리 정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후기 지도 제작 도법의 특징인 방안좌표(方眼座標)는 지도 제작의 가장 기초적인 도법이다. 동서와 남북을 일정한 거리로 구분하여 방안망(方眼網)을 만들고 그 망을 통해 방위와 거리를 표현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방안좌표는 주로 군현지도(郡縣地圖)에 그려졌으며, 방안식 군현지도는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조선지도(朝鮮地圖)》 등이 현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도별도인 정상기형 《동국지도》 중 방안좌표가 그려진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는 정상기형 《동국지도》의 각 도별도 위에 방안이 그려진 지도이다. 조선 후기에 제작된 대축척 지도와 방안이 적용된 지도는 이전시기에 비하여 지도 제작이 한 수준 높아진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지도들을 토대로 하여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대축척 도별도인 정상기형 《동국지도》와 방안식 군현지도 집인 《해동여지도》 등은 각각 《대동여지도》의 편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도별도인 정상기형 《동국지도》가 《대동여지도》로 발달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행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를 고찰하고, 이 지도에 표현

된 방안의 체계를 분석하여, 정상기형 《동국지도》가 《대동여지도》로 발전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도별지도에 속하는 정상기형 《동국지도》 유형과의 비교를 통하여, 연구 중심이 되는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한다. 지도의 전체적인 형태 및 해안선, 국토의 윤곽을 비교하여 정상기형 《동국지도》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 지를 분류하고 군현의 지명 및 위치 비정을 통하여 제작 시기를 추정한다.

둘째, 방안식 군현지도집인 《해동여지도》와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방안 체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20리 방안이 그려진 《해동여지도》는 방안좌표에 수치를 기입하여 도별도로 합하여 보는 것을 편리하게 만든 지도이다. 따라서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정확한 비교를 통하여 조선 후기 방안식 군현지도와 방안식 도별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동국지도》는 조선 시대 지도 제작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지도이다. 이러한 지도의 발달로 조선 후기에 김정호(金正浩)는 《청구도(靑邱圖)》,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등의 지도를 제작하였다. 조선 후기 대표적인 대축척 조선 전도 《대동여지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정상기형 《동국지도》가 대축척 조선 전도인 《대동여지도》의 제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하고자 한다. 각 군현의 위치 비정 및 해안선의 비교를 통하여 상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위에서 정리한 연구 목적을 토대로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를 고찰하고, 《대동여지도》로 발전해갈 수 있는 토대가 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정상기형 《동국지도》 중 방안이 그려진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이다.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분석을 위하여 비교 대상으로 정상기형 《동국지도》와 방안식 군현지도집, 대축척 조선전도를 삼았다.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는 정상기형 《동국지도》에 속하는 도별도이므로 정상기형 《동국지도》의 제작 과정 및 발달을 정리하였다. 또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지도이므로 조선 후기의 군현지도집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이후 대축척 조선전도와 비교를 통하여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가 조선 후기 대축척 조선전도로의 발달과정에서 영향을 주고 받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지도의 형태적 특성 및 계열 파악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팔도지도(八道地圖)》(奎10331)을 비교대상으로 삼았다. 《팔도지도》는 정상기형 《동국지도》의 원도계열에 속하는 지도로, 《팔도지도》에 나타난 지도의 윤곽, 지명 등 지도의 내용을 비교하였다.<sup>3)</sup>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방안식 군현지도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古貴2107-36)이다. 《해동여지도》는 20리 방안이 그려진 군현지도로,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에서는 조선후기의 방안식 군현지도집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영향을 준 지도로 밝혀졌다.<sup>4)</sup> 따라서 본 도별도와와의 연계성을 따져보고, 도별도인 《동국지도》가 조선전도인 《대동여지도》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조선전도로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신여자대학교 소장 《대동여지도》(47)를 선정하였다.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조선 후기 조선전도인 《대

3) 소장처의 경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 규장각,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을 성신여대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을 장서각, 고려대학교 도서관은 고려대도서관, 고려대학교 박물관은 고려대박물관으로 줄여서 표시하기로 한다.

4) 김기혁, 2007, “조선후기 방안식 군현지도의 발달 연구 : 『東國地圖 三』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19권 제1호, pp.19~21.

도여지도》와의 비교 및 고찰을 통하여 조선 후기 대축척 조선 전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팔도지도》와의 비교는 각 도별도의 비교를 통해 지도에 나타난 읍치들의 위치 및 해안선의 윤곽을 살펴보았다. 읍치의 위치 및 해안선 윤곽의 비교를 위하여 비교 대상 지역으로 함경북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일대를 비교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해동여지도》와의 비교도 마찬가지로 방법을 이용하였다. 《해동여지도》는 군현지도이기 때문에 각 군현의 방안의 크기를 일정하게 맞추어, 방안에 기입된 숫자를 참고하여 군현지도를 합하여 도별도로 연결하였다. 그 후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비교 대상인 지역은 전라도 일대로, 이 일대의 해안선 윤곽을 살펴보았다. 《대동여지도》 또한 전라도 일대를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 《팔도지도》, 《해동여지도》, 《대동여지도》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여》의 국토 윤곽 비교를 시도하였다.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가 표현하고 있는 국토의 윤곽이 어떤 모습을 보이며, 조선 후기 지도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지도의 비교는 원본의 열람 및 소장 기관에 지도 이미지를 신청 및 제공받아 편집 작업을 거쳐 비교를 실행하였다. 지명의 비교를 통해 지도의 제작 시기 및 제작 시기의 사회적 배경을 파악했다. 지명 변화는 기존 연구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및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을 이용하였다.

### 3. 선행 연구

1970년대에 이르러 본격화된 《대동여지도》에 대한 연구에서, 《대동여지도》의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 된 지도는 《동국지도》라는 결과가 있었다.

김경성(1977)은 조선시대 이회(李薺)의 《팔도도(八道圖)》가 정척·양성지의 《동국지도(東國地圖)》에 영향을 주었으며, 조선 전기 지리학 발달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 《동국지도》가 정상기의 《동국지도(東國地圖)》에 영향을 미쳤고,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기본도가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sup>5)</sup>

이상태(1991)는 정상기의 팔도분도(八道分圖)는 영·정조시대를 거쳐 김정호의 《청구도(靑邱圖)》로 이어지며, 이 이후에 제작된 조선전도는 정상기의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 맥을 이어 《대동여지도》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양보경(1995a)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편찬 작업에 영향을 주었던 지도들은 16세기 이후 꾸준히 편찬된 각 지방의 지리지인 읍지(邑誌) 및 군현지도(郡縣地圖)라 꼽았다. 군현지도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방안지도(方眼地圖)로, 김정호가 제작한 전국지도들도 방안지도이다. 김정호는 영·정조대의 방안지도를 검토하고 그것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지도를 제작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는 김정호의 지도 편찬에 직접 영향을 주었던 지도로 추정하였다.<sup>7)</sup>

또한 20리 방안 위에 그린 군현지도는 전국 모든 군현을 동일한 축척으로 그려, 지도의 분합(分合)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전국의 각 군현지도를 연결시켜 지역별, 도별, 전국지도로 합해볼 수 있고, 나누어 볼 수도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동일한 축척을 가진 군현지도들은 《대동여지도》와 같은 대축척

5) 김경성, 1977, “韓國古地圖에 關한 研究”, 낙산지리 제4호, pp.19~23.

6) 이상태, 1991, 朝鮮時代 地圖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9~83.

7) 양보경, 1995a, “『大東輿地圖』를 만들기까지”, 한국사시민강좌 제16권, pp.98~109.

전국지도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라 추정하였다.<sup>8)</sup>

## 1) 방안지도

이찬(1981)은 간의(簡儀)제도의 완성과 인지의(印地儀)의 발명은 한정적 지점에 서였으나 경도와 위도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18세기 정상기의 《동국지도(東國地圖)》와 같은 대축척지도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했다. 또한 정상기의 《동국지도》에는 1700년대 중반의 사본에서부터 방안이 그려져 있었으나 전사과정에서 소실되었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1820년대 제작된 정상기형 《동국지도》에 나타난 방안은 원도계열의 지도를 축소하여 전사하면서 방안좌표의 기입이 불가피하였을 것이라 주장하였다.<sup>9)</sup>

1990년대 이후에는 방안식 군현지도집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양보경(1992)은 규장각에 소장되어있는 18세기에 제작된 도별 비변사지도(備邊司地圖)를 고찰하여 방안이 나타난 지도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지도임을 밝히고, 지도의 의의를 살폈다. 비변사지도는 비변사의 인(印)이 찍힌 방안식 군현지도집로, 《영남지도(嶺南地圖)》, 《호남지도(湖南地圖)》, 《호서지도(湖西地圖)》, 《충청좌도각읍지도(忠淸左道各邑地圖)》, 《해서지도(海西地圖)》, 《함경도전도(咸鏡道全圖)》가 포함된다. 이 지도들은 지명을 기준으로 제작 시기를 살폈을 때, 1747년~1750년 사이에 제작된 지도로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방안지도이다. 관방(關防)에 관련된 내용 및 도로, 도서(島嶼) 등의 파악에 중점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상세하고 풍부한 주기를 통해 지도 내 지지적(地誌的)인 내용을 결합한 지도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sup>10)</sup>

이어 규장각 소장 《조선지도(朝鮮地圖)》 및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조선지도》는 1767년에서 1776

8) 양보경, 1995b, “朝鮮後期 郡縣地圖의 發達”, 문화역사지리 제7호, pp.58~61.

9) 이찬, 1981, “한국 고지도에서의 좌표체계”,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권 제1호, pp.3~11.

10) 양보경, 1992, “18세기 비변사지도의 고찰 -규장각 소장 도별 군현지도집을 중심으로-”, 규장각 제15권, pp.95~115.

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국의 모든 고을을 동일한 축척으로 그려, 이어 붙이면 전도가 될 수 있게끔 만든 획기적인 지도이다. 《해동여지도》는 《조선지도》를 모사한 지도이면서, 김정호의 지도 편찬에 직접 영향을 주었던 지도로 추정하였다. 지도는 19세기 초에 편찬된 지도로 볼 수 있으며, 지도의 내용은 《조선지도》와 거의 같다. 형식상 가장 큰 차이점은 《조선지도》와 달리 작은 군현은 두 개 이상을 한 폭에 그려 넣었다는 점이다. 또한 각 도의 맨 앞 장에 <경위전도(經緯全圖)>를 넣어 지도의 색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양보경(1995)은 “《대동여지도》를 만들기까지”의 글을 통해 조선후기 지도 발달의 특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대축척지도 및 다양한 주제의 지도 제작, 그리고 지방 군현지도의 지도 편찬 급증 등과 같은 변화는 후에 《대동여지도》제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sup>11)</sup>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방안식 군현지도들 중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지도(地圖)》,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팔도지도》가 소개되었다.

김기혁(2007)은 방안식 군현지도는 지도 위에 방안을 표현한 지도로, 제작 목적이 군현을 연결하여 전국전도의 제작을 염두에 두고 그린 것으로 보고, 전도 혹은 도별전도 제작의 중간단계 지도로 파악하였다. 수록 지명으로 《청구도》 및 《대동여지도》의 편찬과 관련이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조선후기 방안식 지도책은 경위선 수치가 기재된 《동국지도 삼(東國地圖 三)》·《해동여지도》와 수치가 기재되지 않은 《조선지도》 등 두 계열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2)</sup>

이로써 조선 후기에 제작된 방안식 군현지도는 《대동여지도》와 같은 대축척 조선전도를 제작하는 기틀이 되었다는 연구가 이론으로 성립되었다.

---

11) 양보경, 1995a, 전계서, pp.84~121.

12) 김기혁, 2005, “조선 후기 군현지도의 유형 연구 -동래부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제40권 제1호, pp.15~25.

김기혁, 2007, 전계서, pp.19~36.

## 2) 정상기형 《동국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대한 연구는 정인보(鄭寅普)에 의해 최초로 행해졌다. 그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와 아울러 정상기의 《팔도도》를 해제하면서 정상기는 최초로 백리척을 고안하여 보다 과학적인 지도를 제작하였으며 이 지도는 김정호의 《청구도》에 비해서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였다.<sup>13)</sup>

1960년에 역사학자인 이병도(李丙燾)는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독창적인 백리척을 사용한 정확한 지도이며 육로 뿐만 아니라 해로를 포함한 교통로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지도학 수준을 한 단계 높여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의해 우리나라의 지도가 비로소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sup>14)</sup> 또한 이상태는 정상기의 팔도분도는 김정호의 《청구도》로, 동국대 지도는 《대동여지도》로 각각 이어졌다고 하였다.<sup>15)</sup>

과학사분야에서도 《동국지도》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가 있었다. 전상운(全相運)은 『한국과학기술사(韓國科學技術史)』에서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백리척의 축척을 사용하고 각 도를 이으면 전도(全圖)가 되도록 하는 동일 축척에 의한 분첩식 지도라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조선 전기 지도의 가장 큰 결점이었던 함경, 평안도 지방의 부정확성을 극복했다고 평가하였다.<sup>16)</sup>

지리학 분야에서도 《동국지도》에 대한 연구가 일찍이 시작되었다. 형기주(1963)는 한국 고지도에 관한 자료들을 소개하는 논문에서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관한 자료를 소상히 소개하였다.<sup>17)</sup> 김경성(1977)은 백리척의 사용, 수륙 교통로, 행정구역의 변천, 토산물 등의 표현이 뚜렷하여 지도가 비로소 경제적·문화적 현상까지도 표현한 우리나라 지도 제작 기술상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왔

13) 연세대출판부편, 1983, 齋園鄭寅普全集, 오상학, 1994,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관한 연구 - 제작 과정과 사본들의 계보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재인용.

14) 이병도, 1960, 鄭尙驥의 〈東國地圖〉, 書誌 제1권 제1호, pp.5~16., 오상학, 1994, 전개서, p.5. 재인용.

15) 이상태, 1991, 조선시대 지도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79~81.

16) 전상운, 1988, 韓國科學技術史, 정음사, pp.337~342.

17) 형기주, 1963, “古地圖에 關한 研究資料”, 대한지리학회지 제1권 제1호., pp.100~101.

다고 평가했다.<sup>18)</sup> 원경렬(1991)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윤곽 상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들고, 정상기의 지도는 김정호의 지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다.<sup>19)</sup>

그러나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이찬에 의해 행해졌다. 이찬(1991)은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동국지도》는 백리척이라는 축척을사용한 42만분의 1 대축척지도이고, 방안좌표를 도입했으며, 정상기의 자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 내려왔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지도상에서 실제 거리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정상기의 큰 공헌이라고 평가하였다.<sup>20)</sup>

Thrower N.J.W와 Kim Young Il(1967)은 UCLA 도서관에 소장된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인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를 기본 자료로 사용하여, 한국의 지도제작 기술을 보이고, 한반도 윤곽을 정확하게 표현한 지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상기는 기리고차(記里鼓車)나 인지의(印地儀) 같은 실측기구를 이용하여 국토를 측량하였고, 이러한 실측 자료를 변환시켜 지도를 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sup>21)</sup>

오상학(1994)은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통해 조선 후기 도별도의 발달 과정을 살폈다. 지도의 제작 배경을 살피고, 《동국지도》 사본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작과정을 밝히고 그 제작시기를 추정하여 시계열적인 분석을 하였다. 또한 《동국지도》 사본들의 계열을 지도의 윤곽과 구성 체계, 수록내용 등에 따라 나누었다. 《동국지도》 사본을 원도 계열, 수정본 계열으로 나누고, 수정본 계열은 초기 수정본 계열, 정후조의 ‘해주신본’ 계열, 〈팔로총도〉와 〈동역도〉 계열로 구분하였다.<sup>22)</sup> 그러나 방안이 삽입된 《동국지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8) 김경성, 1977, 전계서, p.20.

19) 원경렬, 1991, “대동여지도: 현대지도학적인 고찰”, 지리학 제26권 제2호, pp.113~148.

20) 이찬, 1991, 전계서, pp.354~356.

21) Thrower and Kim, 1967, “Dong-Kook-Yu-Ji-Do : A Recently Discoverd Manuscript of a Map of Korea,” *Imago Mundi*, vol. 21., 오상학, 1994, 전계서, p.5. 재인용

22) 오상학, 1994, 전계서, pp.92~94.

## Ⅱ. 조선 후기 정상기형 《동국지도(東國地圖)》와 방안지도

### 1. 정상기형 《동국지도(東國地圖)》의 제작

《동국지도(東國地圖)》는 축척이 적용된 조선 후기 대표적인 도별도(道別圖)로 정상기에 의해 제작되었다. 이 지도는 김정호의 지도들보다 한 세대 앞서는 지도로 이전 시기의 지도들에 비하여 북부지방 및 한반도 형태의 정확성을 보이는 지도이다. 조선 전기에는 정척(鄭陟)과 양성지(梁誠之)의 《동국지도(東國地圖)》 유형 및 동람도(東覽圖) 형식의 지도가 유행했다. 정척·양성지의 《동국지도》는 국가 차원에서 제작한 지도로, 정상기의 《동국지도》 제작 이전까지는 당대에서 정확한 지도로 위치를 차지하였다. 정척·양성지의 《동국지도》는 현전하지 않으나, 그 유형으로 추정되는 지도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그림 1)이다.<sup>23)</sup>



그림 1. 《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

23) 이찬, 1991, 전게서, pp.330~338.

정상기의 《동국지도》 이전에 제작된 동람도 형식의 도별지도들은 종이의 크기에 맞춰 지도를 제작하여 지도의 내용 및 한반도 윤곽이 실제와 차이가 나고, 특히 한반도 북부 윤곽이 부정확했다. 또한 소축척의 전도(全圖)로 약 100만분의 1 내외의 지도이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약 42만분의 1 지도이며 지도에 축척을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지도로 평가받고 있다.

《동국지도》의 제작자인 정상기(鄭尙驥, 1678~1752)는 정인지(鄭麟趾)의 후손으로 하동 정씨는 수대에 걸쳐 지도 제작에 힘써온 가문이다. 정상기의 아들 항령(恒齡), 항령의 아들인 원림(元霖), 항령의 종손인 수영(遂榮)은 모두 지도 제작에 능하여, 지도를 4대에 이어 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규장각 소장 《좌해지도(左海地圖)》에 실려 있는 정윤용(鄭允容)의 서문(序文)에서 언급하고 있다. 정상기의 아들 정항령은 관직이 지평(持平)에까지 이르렀는데 정상기의 지도를 계속해서 수윤(修潤)하였고, 정항령의 아들 정원림도 정조 때 특명으로 『여지고(輿地考)』를 수보하고 관직이 도정(都正)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정항령의 손자 정수영도 그림에 뛰어나 정상기의 지도를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했음을 지적하였다.<sup>24)</sup>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도별도로, 모두 필사본으로 제작되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전도(全圖)와 도별도(道別圖)로 구성되며, 정상기는 ‘동국대전도’를 먼저 그리고 이를 여덟 부분으로 나누어 도별 지도를 제작하여 도별 지도를 합하면 전도가 되도록 고안하였다. 도별도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한 면에 그리고 함경도는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 그렸다.<sup>25)</sup>

24) 규장각 소장 《좌해지도(左海地圖)》(奎12229).

25) 양보경, 2004, 전계서, p.70.

그림 2는 고려대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전도(朝鮮全圖)》이다. 이 지도는 오상학(1994)의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이른 시기인 1700년대 중반에 제작된 정상기형 《동국지도》이다. 소형 〈조선전도(朝鮮全圖)〉를 포함하고 있으며,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를 나누어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도를 한 면에 그렸다. 이는 팔도(八道)를 나누어 그리고 종이의 크기에 맞추어 지도를 그렸던 종전의 지도 제작법이다. 비교적 면적이 작은 경기도와 충청도는 한 면에 싣고, 면적이 넓은 함경북도와 함경남도는 각각의 장으로 싣었다.

〈함경북도〉에는 백리척(百里尺)을 그리고 발문(跋文)을 기록하였다. 발문에는 지도 제작 경위와 함께 지도의 제작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정상기는 그동안의 지도는 종이의 크기에 맞추어 지도를 제작하여, 지면의 넓고 좁음을 알아볼 수 없고,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당시 지도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도의 제작 방법에서 각 도별로 음양오행(陰陽五行)에 따른 오방색(五方色)을 적용해 채색했음을 밝혔다. 경기도는 중앙에 위치하므로 황색, 전라도는 남쪽에 있으므로 적색, 강원도는 동쪽에 있으므로 청색, 평안도는 서쪽에 있으므로 백색, 함경도는 북쪽에 있으므로 흑색, 그리고 중간에 위치한 충청도는 황적색, 경상도는 청적색, 황해도는 회색으로 균현명의 바탕색을 칠하였다.<sup>26)</sup>

---

26) 양보경, 2004, 전계서, pp.70~71.



그림 2. 고려대박물관 소장 《조선전도(朝鮮全圖)》(D129)  
 〈조선전도〉, 〈함경북도〉, 〈경기부충청도〉, 〈전라도〉

정상기의 《동국지도》에서 그는 이전 시대에 나타난 지도들의 결함을 이미 파악하였고, 그러한 결점을 보완한 지도를 만들고자 하였음을 발문으로 기록하였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조선전도(朝鮮全圖)》 중 〈함경북도〉 발문(跋文)에는 이러한 실정이 나타나 있다.

我國地圖行於世者 不知其數而無論其模本印本 皆從紙面闊狹方圓而爲之 故山川道里盡爲相左 十餘里之近者或遠於數百里 數百里之遠者或近於十餘里 以至東西南北或易其位 若按其圖而欲往遊於四方即無一可據 與冥行者無異矣 予以是病遂作此圖 … (후략)<sup>27)</sup>

지도들은 종이의 크기에 맞추어 지도를 제작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산천 도리가 모두 맞지 않는다. 십여리 되는 가까운 지역이 백리 먼 곳에 놓여있고, 백여리 먼 것이 십여리마치 가까운 곳에 표현되어 있어 동서남북 위치를 나타내는 데에도 문제가 있었다. 만약 이러한 지도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 마치 어둠 속의 여행자나 다름없을 것이다. 내가 이를 매우 유감히 여겨 이 지도를 만든 것이다.<sup>28)</sup>

정상기는 이와 같은 결함을 수정하기 위하여 백리척(百里尺)을 고안하였다. 백리척은 1척(尺)이 100리(里)에 해당하고, 1촌(寸)이 10리에 해당되는 축척이다. 이때 척은 주척(周尺)에서의 척이 아니라 정상기가 임의로 만든 단위이다. 백리척을 이용하여 서울을 기점으로 잡고, 도로를 통해 사방으로 각 군현의 위치를 비정하였다. 그는 실측된 도로상의 거리 자료를 활용하여 지도에 군현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sup>29)</sup>

27) 규장각 소장 《팔도지도(八道地圖)》(奎10331).

28) 양보경, 2004, 전게서, p.71.

29) 오상학, 1994, 전게서, pp.30~31.

《동국지도》에서 축척의 개념은 발문을 통해 잘 볼 수 있는데, 그는 산협(山峽)이나 수곡우회처(水曲迂回處)에서는 1척으로 120~130리를 표시하게 하였다. 산지에서의 리수(里數)는 직선 거리로 고쳐서 지도에 표시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직선 거리를 과학적으로 구한 것은 아니지만, 도리도표(道里道標)를 기준으로 하여 축척에 맞추어 그렸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 〈관북〉에 나타난 발문 및 백리척이다.



그림 3. 《동국지도》 〈관북〉 백리척 부분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본들에 나타난 백리척은 대부분 9.6cm에서 9.8cm 정도로, 축척은 약 42만분의 1 정도이다.<sup>30)</sup> 이렇듯 축척을 지도에 표시하고 지도 상에서 실제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한 지도는 《동국지도》에 관한 기록만 남아있다. 성호(星湖) 이익(李瀾)은 『성호사설(星湖僿說)』 「동국지도조(東國地圖條)」에서 백리척을 언급하고 실제와 같은 모양의 지도를 그렸다고 기록한 것을 보아, 당대 제작되어오던 지도들과는 다른 새로운 대축척의 정확한 지도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sup>31)</sup>

정상기의 《동국지도》 사용된 거리 자료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을 저본(底本)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크다. 『동국여지승람』에는 다른 지리지와 달리 경도(京都)에서 각 군현까지의 거리 및 각 군현간 거리, 도서지방의 이정(里程) 등이 실려 있다. 《동국지도》에 주기되어 있는 이러한 거리 정보들을 살펴볼 때, 정상기는 『동국여지승람』의 지리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여타 문헌을 얻을 경우 참고하여 보다 정확한 거리를 지도상에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sup>32)</sup>

---

30) 이찬, 1991, 전계서, p.354.

31) 李瀾, 『星湖僿說』 「東國地圖條」.

32) 오상학, 1994, 전계서, p.28.

## 2. 정상기형 《동국지도》의 발달

정상기형 《동국지도》는 향령, 원림, 수영에 걸쳐 4대 동안 전사·수정되면서 조선 후기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지도이다. 앞서 살펴본 《좌해지도》 외에 규장각 소장 《팔도지도(八道地圖)》(古軸4709-48)의 〈함경북도〉에는 1790년 황윤석(黃胤錫)이 정상기의 지도를 직접 모사·수정 하면서 지도 제작과 관련하여 남긴 발문(跋文)이 기록되어 있다(그림 4).



그림 4. 《팔도지도》(古軸4709-48) 〈함경북도〉 중 황윤석의 발문.

황윤석은 발문에서 자신이 보고 그린 지도는 하동정씨(河東鄭氏) 첨추(僉樞) 정상기(鄭尙驥)의 지도이며, 최근에 해주정씨(海州鄭氏) 좌랑(佐郎) 정후조(鄭厚祚) 또한 정상기의 지도를 수정하여 지도를 만들었다고 기록하였다.<sup>33)</sup>

이 기록에서 정상기의 《동국지도》의 발달 배경에 또 다른 인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주정씨 가문의 정철조(鄭喆祚)와 정후조(鄭厚祚) 형제는 정상기의 지도를 증수(增修)하여 정상기의 지도만큼 뛰어난 지도를 제작하였다.

정철조, 정후조는 영조 때 승지(承旨), 공조판서(工曹判書) 등을 역임한 정운유(鄭運維)의 아들이다.<sup>34)</sup> 정철조는 화가로서 그림뿐만 아니라 천문, 역산, 서학에도 뛰어남을 보였다. 그는 황윤석을 비롯하여 연암 박지원, 초정 박제가 등 북학파와의 교류를 통하여 서양의 선진 학문을 받아들였다. 그는 의기(儀器)의 제작과 관련하여 황윤석과의 서찰을 주고받은 것을 보아 천문, 역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35)</sup>

이덕무(李德懋)의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는 동생인 정후조(鄭厚祚)가 저술한 『사예지(四裔志)』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sup>36)</sup> 『사예지』에는 지면을 측량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정후조는 천문, 역법 등에 능하고 『사예지』라는 지리서까지 제작할 정도로 국토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해주신본(海州新本)’은 정상기형 《동국지도》 사본 중 수정본 계열로 구분된다.

33) 규장각 소장 《팔도지도(八道地圖)》(古軸4709-48).

34)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35) 황윤석, 『頤齋遺稿』 卷之八 與鄭喆祚書.

36) 이덕무, 『靑莊館全書』 卷之六十 葢葉記 各省北極高度.

해주 정씨 가문의 정후조가 제작한 《동국지도》는 정상기의 원본 지도보다 훨씬 풍부한 지리 정보를 담고 있다. 정후조가 제작한 《동국지도》로 파악되는 사본은 성신여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국팔로분지도(東國八路分地圖)》(65)와 규장각에 소장된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古4709-54) 등이다. 《동국팔로분지도》는 전도인 총도(總圖) 1폭, 팔도분도(八道分圖) 8폭, 영애해방도(嶺隘海防圖) 1폭, 사예도(四裔圖) 1폭 등 총 11폭으로 구성된 지도이나, 현존하는 지도는 도별도 8폭이다.



그림 5. 《동국팔로분지도》(65) 표지 및 범례

지도 표지에 ‘갑진맹춘(甲辰孟春)’ 이라 기록된 것을 보아, 1784년 음력 정월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지도첩의 마지막 장에는 지도의 범례가 기록되어 있어 지도 제작 방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감영(監營)과 읍치(邑治), 진보(鎭堡), 역(驛)은 서로 혼동되지 않게 그렸다고 기록하였다. 또한 경도(京都)는 황색을 이용하여, 감영(監營)은 홍색의 방권(方圈)을 이용하여, 병영 및 수영은 청색의 방권을 이용하여 모든 군현에 그렸으며, 홍색의 방원에 각 군현의 이름을 적었다. 역은 황색의 작은 방권을 이용하고, 진보는 청색의 방권을 이용하여 표현하였음을 기록하였다.<sup>37)</sup> 지도의 범례에 충실히 지도를 그렸음을 그림 6

의 《동국팔로분지도》 〈충청도〉 지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각 군현은 적색의 방원으로 표시하였고 그 옆에 군현명을 적었다. 군현의 경계는 적색의 선으로 표현하고 각 면(面)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그림 6. 《동국팔로분지도》(65) 〈충청도〉

37) 성신여대 소장 《동국팔로분지도(東國八路分地圖)》(65) 東國輿地圖凡例.

오상학(1994)은 지도의 윤곽과 구성 체계, 수록내용 등에 따라 《동국지도》의 계열을 크게 정상기의 원도계열과 수정본 계열로 나누었다. 정상기의 원도를 그대로 모사한 사본들을 원도계열, 그리고 후대에 수정된 사본들을 수정본 계열로 구분하였다.

정상기형 원도 계열은 정상기의 지도를 그대로 모사한 지도로, 한반도 윤곽을 비롯한 전체적인 표현이 그대로 이어지고 지명과 같은 후대에 변화된 지리정보를 수정한 사본들이다. 이 계열에 속하는 지도들은 정상기의 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경기도와 충청도를 한 면(面)에 그리고, 함경도는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로 나누어 그린 지도들이다. 또한 주로 함경북도 지도에 백리척과 정상기의 발문이 전사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사본들이다. 압록강, 두만강의 유로는 후대에 제작된 지도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반영되어 있다. 산맥이나 하천의 표현체계도 대부분의 사본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고, 군현의 위치나 봉수, 역참 등도 대부분 동일하다. 단지 지명들이 후대로 가면서 보완된 정도이다.<sup>38)</sup>

규장각 소장 《팔도지도(八道地圖)》(奎10331)는 이러한 원도 계열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어 정상기형 《동국지도》의 원도계열에 속하는 지도이다. 1776년에 개명된 초산(楚山)이 표시되어 있으며, 1787년에 설치된 장진부(長津府)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776년에서 1787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와 충청도를 한 면에 그리고 함경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 그린 도별도이다.

원도계열에 속하는 사본들 중 《팔도지도》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제작된 고려대박물관 소장 《조선전도》와 후대에 제작된 성신여대 박물관 소장 《동국지도(東國地圖)》의 충청도 일대 해안선을 비교하였다.

---

38) 오상학, 1994, 전제서, pp.5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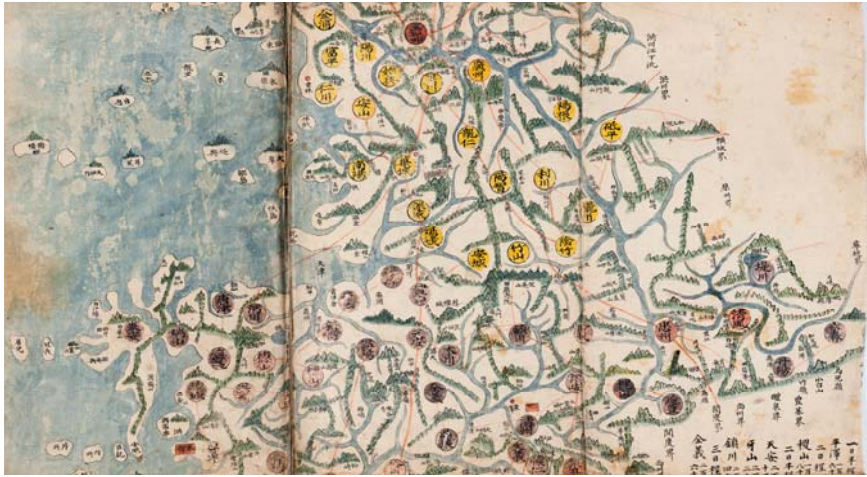


그림 7. 《조선전도》(D129), 《팔도지도》(奎10331), 《동국지도》(53)  
경기도·충청도 비교

그림 7은 정상기형 《동국지도》 원도 계열 사본들의 경기도 및 충청도 일대의 해안선을 비교한 결과이다. 《조선전도》와 《팔도지도》, 《동국지도》의 제작 시기는 각각 1747~1758년, 1776년~1787년, 1800~1822년 사이로 추정된다. 제작시기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에 나타난 지리 정보 및 해안선의 형태에는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충청도 태안의 안면도(安眠島) 부근의 오류는 후대에도 변함없이 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도계열의 사본들에서 안면도는 태안반도에 이어져 그려져 있으며, 홍주(洪州)의 흥양곶(興陽串)은 사실과 다르게 섬으로 표현되어 있다(그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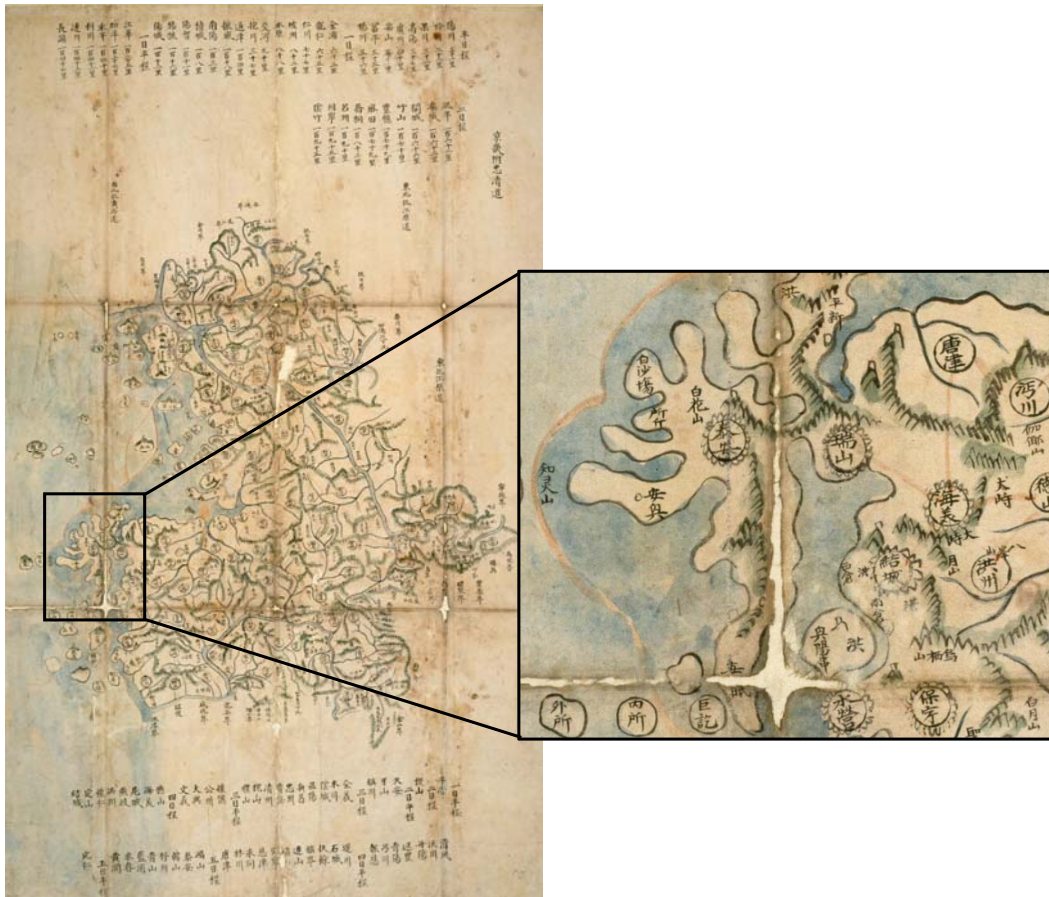


그림 8. 《팔도지도》(奎10331) <경기부충청도> 태안반도 세부도

규장각 소장 《팔도지도》는 《동국지도》의 사본들 중 원도 계열에 속하는 지도로 연구 대상인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가장 유사한 지도이다. 지도는 〈강원도〉, 〈경기부충청도〉, 〈경상도〉, 〈전도〉, 〈전라도〉, 〈평안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황해도〉의 9개 도엽으로 이루어져 있다. 〈함경북도〉에는 백리척과 발문이 실려 있으며, 지도에 나타난 지리정보 또한 앞서 살펴본 원도계열의 특징과 같다. 〈경기부충청도〉에는 안면도를 태안반도에 이어지게 그렸으며, 흥양곶(興陽串)을 섬으로 표현하였다. 〈전라도〉에는 제주도의 정의현 서쪽에 호수를 그렸으며, 백야곶을 섬으로 표현하였다. 이 외에도 압록강 유로나 함경북도의 백리척·발문의 주기 등이 다른 원도 계열의 사본들과 같다.

《동국지도》 수정본 계열은 지도첩의 구성, 백리척과 발문의 유무 등으로 원도계열과 크게 구분되며, 평안도 만포(滿浦)에서 중강진(中江鎭)에 이르는 압록강 유로나 전라도 백야곶(白也串)지역 등이 수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수정본 계열은 초기 수정본 계열, 해주신본 계열, 동역도·팔로총도 계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 수정본 계열은 정상기형 원도 계열과 달리 경기도와 충청도를 각각의 장에, 함경남도와 북도를 한 장에 그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백리척과 발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원도계열에 비하여 많다. 초기 수정본은 지도첩의 구성 뿐만 아니라 국토의 윤곽을 나타내는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강진(中江津)에서 만포(晚浦)로 이어지는 압록강 유로는 원도 계열에 비하여 우리나라쪽으로 만입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원도계열에서 남해안의 백야곶(白也串)을 섬으로 표현했던 오류를 시정하여 곶으로 표현하고 있다. 초기 수정본 계열에 속하는 사본들은 원도 계열의 사본에 비하여 많은 양의 지리정보를 표현하였다. 산천, 고개, 창고, 산성, 사찰 등의 표현이 담겨 있으며 일부 면명(面名) 등까지 담고 있다.<sup>39)</sup>

39) 오상학, 1994, 전계서, pp.76~77.

해주신본 계열은 정상기의 《동국지도》 보다 지리적 내용을 상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하였다. 정상기의 지도에서는 군현명, 도로, 산맥 및 하천 등만 표시했으나, ‘해주신본’에는 산의 영애(嶺隘), 강의 진량(津梁), 창고(倉庫), 면명(面名), 역참(驛站) 등의 위치를 추가함에 따라 자세한 지도가 되었다. 또한 각 군현간의 경계를 표시하였다(그림 6참조).<sup>40)</sup>

해주신본 계열은 원도 계열이나 초기 수정본 계열과 비교하였을 때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로 산맥 및 하천 등의 표현이 훨씬 정교해졌으며, 10리가 넘는 하천이나 산맥들은 명칭이 없더라도 그려 넣었다. 두 번째로 지도상에 군현명, 교통로, 해로, 산성, 역 뿐만 아니라 봉수 및 군현의 방리(坊里) 등을 표기하였다. 세 번째로 정상기의 원도 계열 사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군현 간 경계를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리정보를 보다 체계화 하였다는 점이 해주신본 계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sup>41)</sup>

동역도·팔로총도 계열은 규장각 소장 《동역도(東域圖)》(古4709-27)와 《팔로총도(八路總圖)》(古軸912,51-P186)의 관계를 통하여 볼 수 있다. 《동역도》와 《팔로총도》의 지명을 살펴보았을 때, 《팔로총도》가 먼저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지도의 형식이 유사한 것을 보아, 먼저 제작된 《팔로총도》를 팔도로 분리한 뒤 모사하여 후대에 《동역도》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팔로총도》는 초기 수정본 계열의 사본들이 주로 제작되었던 176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해안 지역의 윤곽이 보다 자세해지고, 많은 섬들이 표현되어 있으며 초기 수정본 계열의 사본들과 같이 원도계열에서 나타나는 오류를 시정하고 있어 같은 계열의 지도라 할 수 있다.<sup>42)</sup>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도별도로, 백리척이라는 축척을 적용한 지도였다. 이 지도는 여러 본이 전사되었는데, 하동 정씨의 4대에 이어 증보 및 수정되었고, 천문 및 역학 등에 뛰어났던 정철조, 정후조 형제의 해

40) 양보경, 1995a, 전계서, pp.93~98.

41) 오상학, 1994, 전계서, pp.79~86.

42) 오상학, 1994, 전계서, pp.87~89.

주정씨 가문에 의해서도 수정 및 전사되었다.

원도계열에 가까운 지도일수록 발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경기도와 충청도를 한 면에 그리고, 함경도는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 그렸으며, 함경북도 여백에 백리적을 그려 넣고 발문을 전사하였다. 또한 원도계열에서는 전라도 백야곶(白也串)을 섬으로 표현했으나, 수정본 계열에서는 이를 섬으로 수정하였다. 이 외에도 변화된 지명과 읍치 등도 수정 및 전사 되어가면서 보완되었다. 또한 지도에 표현된 지리 정보가 점차 풍부해지고 상세해졌음을 알 수 있다.

### 3. 방안지도의 제작

방안좌표의 사용은 중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방안좌표를 이용한 방안도법(方案圖法)은 가장 기초적인 도법에 속한다. 동서와 남북을 일정한 거리로 구분하여 방위와 거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도법이다. 중국에서는 진나라의 지리학자인 배수(裴秀)에 의해 이 도법을 이용한 방격도라는 지도제작 방식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표(線表)·방격(方格)·방괘(方罫)·계란(界欄) 등의 용어를 써왔다. 방안좌표는 천문학상의 경위선이 아니라, 지구를 평면으로 보았을 때 동서와 남북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하여 만든 경위선 조직을 말한다.<sup>43)</sup>

중국에서는 남송대에 석각(石刻)된 〈우적도(禹跡圖)〉에 매방백리(每方百里)의 방안을 사용하여 약 450만분의 1 축척의 중국도(中國圖)를 작성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명대의 표준 중국지도로 통하는 〈광여도(廣輿圖)〉 또한 대표적인 방안좌표도이다.<sup>44)</sup> 중국의 방안도법은 일찍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방안도법이 최초로 적용된 지도를 찾아볼 수 없고, 실제 방안을 그린 지도는 조선 후기의 지도만을 찾아 볼 수 있다. 청구도에 수록되어 있는 최한기의 청구도제에 따르면 1791년(정조 15)에 10리 간격의 좌표체계가 마련되어 있었다.<sup>45)</sup> 따라서 그 이전에 이미 방안좌표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 지방 행정의 단위인 부(府)·목(牧)·군(郡)·현(縣)을 대상으로 그린 지도를 군현지도(郡縣地圖) 또는 읍지도(邑地圖)라 칭한다. 군현지도는 조선 시대 전반동안 그려졌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전하는 지도는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이다. 군현지도 제작의 활성화는 조선 후기 지도제작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군현지도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지도 제작의 기법에도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는데, 그 중 주목할 것은 방안식 지도의 제작이다.<sup>46)</sup>

43) 국토해양부 국립지리정보원, 2009, 한국지도학발달사, pp.127~128.

44) 이찬, 1991, 전개서, pp.353~356.

국토지리정보원, 2009, 한국 지도학 발달사, 국토해양부, pp.127~130.

45) 최한기, 《靑邱圖》靑邱圖題.

46) 양보경, 1995b, 전개서, pp.55~56.

일정한 크기의 방안을 바탕으로 그려 축척을 적용하여 그린 지도를 ‘방안좌표지도(方眼座標地圖)’ 혹은 ‘경위선표식지도(經緯線表式地圖)’ 등으로 불러 왔다. 방안이 그려진 군현지도는 영조대 이후 주로 제작되었다.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방안식 군현지도의 소장은 표 1과 같다.

1리 방안지도인 규장각 소장 《영남지도(嶺南地圖)》, 《호남지도(湖南地圖)》, 《호서지도(湖西地圖)》, 《충청좌도각읍지도(忠淸左道各邑地圖)》, 《해서지도(海西地圖)》, 《함경도전도(咸鏡道全圖)》는 비변사 인(印)이 찍힌 지도로, 1747년에서 1750년 사이에 제작되었다. 현재까지 연대가 밝혀진 가장 오래된 방안지도이다. 약 7.5~8.0mm 내외의 방안에 축척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지도에 위치와 거리 등을 표현하였다.<sup>47)</sup>

이는 비변사의 도별 군현지도집 편찬 시기에 정확한 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던 방안 및 거리측정 등의 기초가 마련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지도(朝鮮地圖)》는 1767년에서 1776년 사이에 제작된 군현지도로,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등 총 7첩으로 되어있는 지도첩이다. 《조선지도》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전국에 걸쳐 동일한 축척을 적용한 군현지도집이다. 크기가 작은 군현은 한 장에 여러 군현을 그리고, 군현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두면에 이어 그리거나 첩 안에 접어 넣을 수 있도록 그려 넣었다. 지도의 내용 및 형식은 규장각 소장 《팔도군현지도》(古4709-111)와 매우 유사하다.

---

47) 양보경, 1992, 전계서, pp.97~106.

표 1. 방안식 군현지도

	지도명	청구기호	소장처	비고
1	《영남지도(嶺南地圖)》	奎12154	규장각	비변사지도 (備邊司地圖)  1리 방안지도
2	《호남지도(湖南地圖)》	奎12155		
3	《호서지도(湖西地圖)》	奎12157		
4	《충청좌도각읍지도 (忠淸左道各邑地圖)》	古4709-105		
5	《해서지도(海西地圖)》	奎12158		
6	《함경도전도(咸鏡道全圖)》	奎12156		
7	《조선지도(朝鮮地圖)》	奎16030	규장각	20리 방안지도
8	《팔도군현지도 (八道郡縣地圖)》	古4709-111	규장각	20리 방안지도
9	《동국지도 삼(東國地圖三)》	승계貴2702-22	국립중앙 도서관	20리 방안지도
10	《지도(地圖)》	K2-4583	장서각	20리 방안지도
11	《팔도지도(八道地圖)》	古朝61-21	국립중앙 도서관	20리 방안지도
12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古貴2107-36	국립중앙 도서관	20리 방안지도
13	《지도(地圖)》	B-10 A-52	고려대 도서관	20리 방안지도

주 : 김기혁, 2007, “조선후기 방안식 군현지도의 발달 연구 - 『東國地圖 三』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19권 제1호, p.22. 표 1을 수정.

《조선지도》는 영조대의 군현지도 편찬 사업과 연관시킬 수 있는 지도이다. 1770년(영조 46)에 국왕의 명에 따라 신경준(申景濬)은 ‘동국여지도(東國輿地圖)’를 편찬하였다. 이 지도는 『열읍도(列邑圖)』 8권, 『팔도도(八道圖)』 1권, 《전국도(全國圖)》 족자 1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열읍도』는 주척 2촌을 1선으로 하여 동서(東西) 76, 남북(南北) 131개의 선으로 나누어진 방안 지도이다.<sup>48)</sup> 지도 위 방안 한 선의 간격은 20리로, 지도에 표현된 국토의 너비와 길이는 동서 1,520리 남북 2,620리가 된다.

《조선지도》에 나타난 경위선 수는 신경준의 『열읍도』에 나타난 경위선의 수와 같다. 《조선지도》와 『열읍도』의 제작 시기는 각각 1767년~1776년, 1770년대로 추정되고 있어, 《조선지도》는 『열읍도』의 직접적인 모사관계에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sup>49)</sup>

《팔도군현지도(八道郡縣地圖)》 경기도, 충청도, 평안도의 군현지도를 3책으로 엮은 지도책이다. 지도의 내용은 《조선지도》(奎16030)와 동일하나 《조선지도》 경기도 부분에 없는 연천(漣川)·가평(加平)·양주(楊州)·포천(抱川) 등의 고을이 이 지도책에는 들어가 있다. 지도의 순서에서도 《조선지도》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외의 부분에서는 《조선지도》와 거의 동일하다.

《동국지도 삼》은 20리 방안이 그려진 군현지도책으로 현재 경상도 군현지도 들만이 남아있다. 한 면에 하나의 군현만을 그렸으며, 방안의 크기는 모든 군현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채색필사본 지도로, 일부 군현에는 흑색으로 수정 및 가필하여 내용이 추가되었다.<sup>50)</sup>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지도의 제작 시기를 1767년에서 1787년 사이로 추정하였으나 19세기 초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sup>51)</sup> 《해동여지도》는 20리 방안의 경위선을 지도 위에 그린 지도이다. 크기가 큰 고을은 한 면에 그리고 작은 군현은 한 면에 여러 군현을 그렸다. 다만 동일한 지면

48) 신경준, 『旅菴遺考』 卷之五 東國輿地圖跋.

49) 양보경, 1995a, 전계서, pp.105~109.

50) 김기혁, 2007, 전계서, pp.22~25.

51) 김기혁, 2007, 전계서, p.21.

의 사용으로 방안의 크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체 경위선은 동서 76개의 선, 남북 121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제주도의 경우 별도의 10개의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서와 남북으로 그어진 각 선에는 그 수치가 적혀 있는데, 이는 지도를 연결 관계에 있는 군현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용이하였으며, 전도와 도별도로 볼 경우의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 Ⅲ.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東國地圖)》의 제작

#### 1.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東國地圖)》 개요

지도는 〈기호(畿湖)〉, 〈해서(海西)〉, 〈호남(湖南)〉, 〈영남(嶺南)〉, 〈관동(關東)〉, 〈관북(關北)〉, 〈관서(關西)〉, 〈관남(關南)〉 총 8매로 구성되어 있다.

〈기호(畿湖)〉에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한 장에 그려 놓았고, 〈해서(海西)〉에는 황해도지역을 그렸다. 〈호남(湖南)〉과 〈영남(嶺南)〉에는 각각 전라도와 경상도 일대를 그렸다. 〈관동(關東)〉, 〈관북(關北)〉, 〈관서(關西)〉, 〈관남(關南)〉은 강원도, 함경북도, 평안도, 함경남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지도에 그려진 방안의 간격은 약 2.7cm이며, 지도는 세로 69.6cm, 가로 45.6cm의 같은 크기의 종이에 제작되었으며 지도 모두 낱장으로 배접되어 있다.

지도에는 도로와 군현, 산지의 표시 등이 통일된 체계로 그려져 있다. 도로는 적색의 곡선으로, 군현은 적색의 원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산지는 八모양으로 표현하였으며 연속된 줄기 체계로 그렸다. 진보(鎭堡)와 병영(兵營) 및 수영(水營)은 적색의 작은 사각형으로, 역(驛)은 적색의 작은 원으로 구별하여 표현하였다. 또한 지도에는 봉수(烽燧)와 산성(山城)을 자세히 표시하였다.

##### 1) 〈기호(畿湖)〉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한 면(面)에 그렸다. 지도 위에 그려진 경위선 중 〈기호〉(그림 9)에 포함되는 경선은 14부터 29까지, 위선은 34부터 50까지이다.

경기도의 개성(開城)과 광주(廣州), 화성(華城), 충청도의 공주(公州)에 감영표시를 하였다. 서울은 성가퀴로 도성(都城)을 나타냈으며, 그 안에 경(京)이라 적었다. 충청도의 태안반도 남쪽에 위치한 안면도(安眠島)가 섬으로 그려지지 않고, 태안반도의 일부분으로 그려져 있다. 〈기호〉에는 수원부가 화성(華城)으로 기록

되어 있다. 화성은 1793년 개칭하였으므로<sup>52)</sup>, 지도는 1793년 이후 제작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경기도 금천(衿川)은 1795년 옛 음호를 따라 시흥(始興)으로 군현명을 변경하였는데<sup>53)</sup>, 지도에는 이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1823년부터 1866년까지 혁파된 경기도의 풍덕(豐德)이 지도에 나타나있지 않다. 따라서 지도의 제작이 1823년 이전이거나 1866년 이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00년에 충청도의 이성(尼城)의 음명을 노성(魯城)으로 변경되었는데,<sup>54)</sup> 지도에는 노성(魯城)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1800년 이후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해서(海西)〉

〈해서〉(그림 10)는 평안도 일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도 위의 경선은 22부터 36까지, 위선은 29부터 40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다. 황해도 수영(水營)이 웅진(瓮津)에 표시되어 있으며, 소강(所江)에는 행성(行城)이 표시되어 있다. 〈해서〉에는 해주(海州)가 감영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황강현(黃岡縣)으로 강등되었던 1824년에서 1834년 사이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도이다. 따라서 이 지도는 1824년 이전 또는 1834년 이후의 황해도 지리적 내용을 담고 있다.

## 3) 〈호남(湖南)〉

전라도 일대를 그린 지도로 도로 및 감영 표시는 이전 지도들과 동일한 체계로 그려져 있다. 경선은 17부터 32까지, 위선은 48부터 72까지 그려져 있다. 감영은 전주(全州)에 표시되어 있으며, 적상산(赤常山), 입암산(笠岩山), 금성산(金城山), 교룡산(蛟龍山) 등에 산성을 표시하였다. 해남에서 제주도까지의 거리는 지도에 나타난 방안의 칸으로 측정할 경우 400여리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해남(海南)부터 제주도까지의 거리를 970로 기록한 것을 보아 전라도와 제주도를 한 장

52) 『정조실록』 권37, 17년 1월 병오.

53) 『정조실록』 권42, 19년 윤2월 계미.

54) 『순조실록』 권1, 즉위년 8월 경오.

에 담기 위해 방안의 수를 줄인 것으로 추정된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흑산도(黑山島)까지 900리, 가가도(可佳島)까지는 1300리라고 기록되어있다. 지도 좌측 하단에 기록된 ‘구본에는 오류가 많아 수정하였다(舊本此處多誤略他本正之)’는 주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백야곶 부분으로 원도 계열에서 섬으로 표현하였던 것을 곶으로 수정하였다.

〈호남〉에는 남원(南原)과 격포진(格浦鎭)이 표기되어 있다. 남원은 1844년<sup>55)</sup>에 강등되었다가 1853년에 다시 복설<sup>56)</sup>되었고, 부안(扶安)의 격포진은 1842년에 혁파<sup>57)</sup>되었다. 따라서 지도의 제작 시기는 1842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 4) 〈영남(嶺南)〉

경상도 일대를 그린 지도이다. 감영은 대구(大邱)에 표시되어 있으며, 경선은 6에서 21까지, 위선은 42부터 60까지 그려져 있다. 산성은 금성(金城), 독용산성(禿用山城), 화산(花山), 금정산(金井山) 등에 표현되어 있다. 대마도(對馬島)까지는 480리로 기록되어 있으며, 울릉도(鬱陵島)와 우산도(于山島)를 표시하였다. 울릉도와 우산도 남쪽에는 ‘종이가 좁아 이 첩의 끝에 그렸다’는 주기를 기록하였다. 대마도가 그려져 있으며, 대마도까지의 거리는 480리이다.

---

55) 『영조실록』 권50, 15년 9월 정묘.

56) 『영조실록』 권71, 26년 4월 무인.

57) 『승정원일기』 현종 8년 9월 경술.



그림 9. 《동국지도》 〈기호(畿湖)〉



그림 10. 《동국지도》 〈해서(海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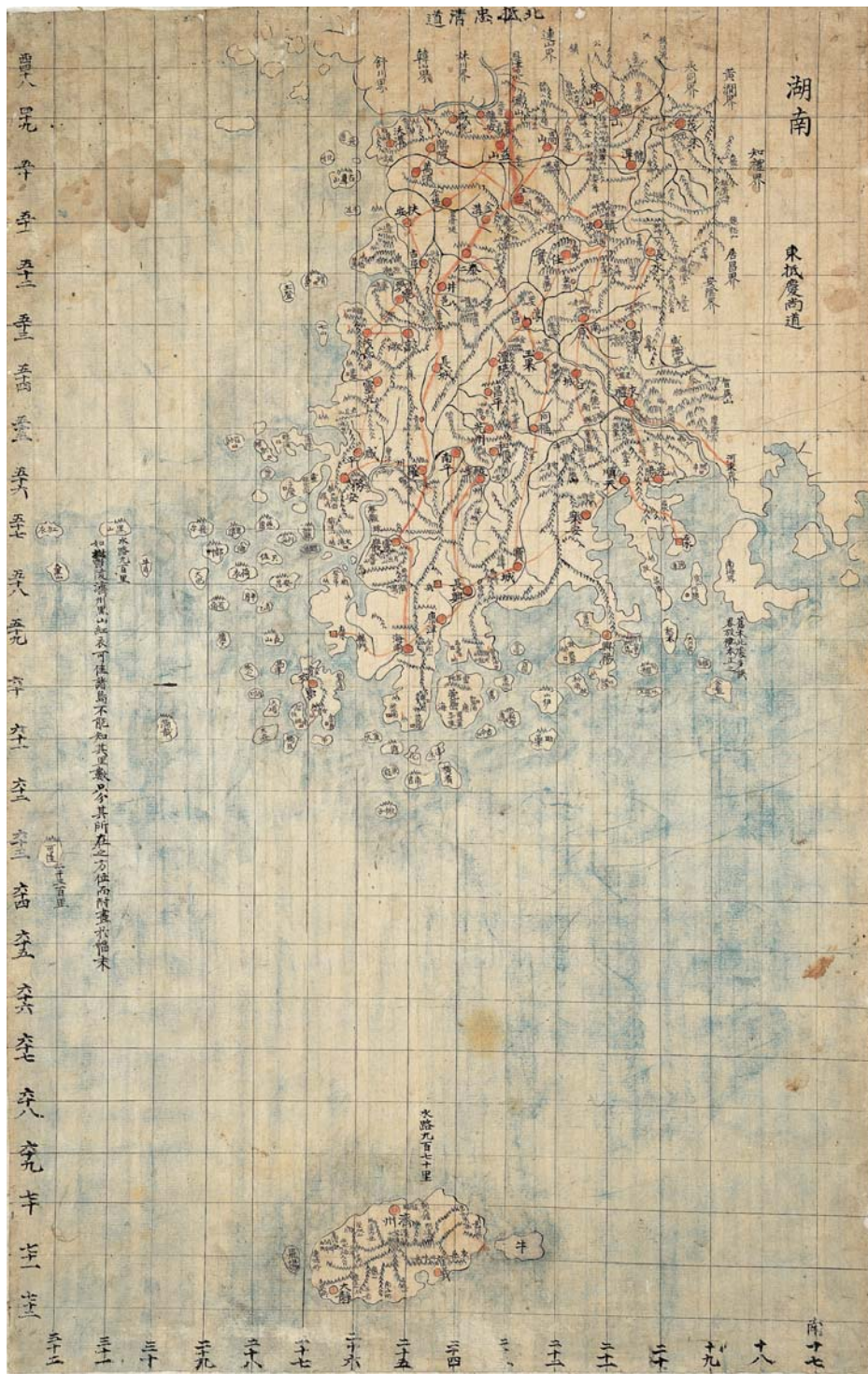


그림 11. 《동국지도》 〈호남(湖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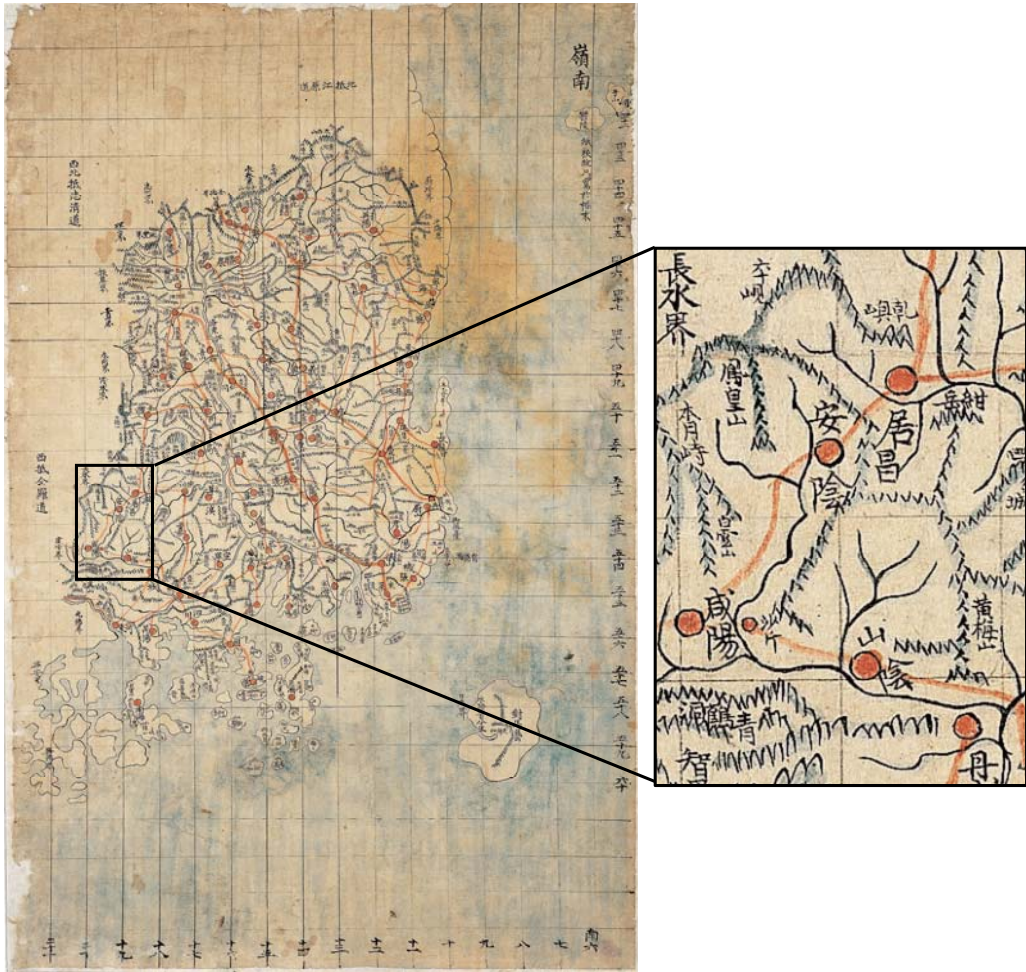


그림 12. 《동국지도》 〈영남(嶺南)〉 및 부분도

### 5) 〈관동(關東)〉

〈관동〉(그림 13)은 강원도 일대를 그린 지도이다. 감영은 원주(原州)에 위치해 있다. 경선 9에서 24까지, 위선 20에서 47까지 강원도 일대를 표현하고 있다. 금강산(金剛山)의 산세를 여러 겹의 산줄기로 표현하여 강조하고 백두대간을 표현하였다. 다른 도별도와 달리 〈관동〉지도에서는 백두대간의 고개(嶺) 이름을 자세히 적었다. 삼척(三陟)의 동쪽에 울릉도와 우산도를 표현하였다.

6) <관북(關北)>

함경북도 일대를 그린 지도이다. <관북>(그림 14)에 그어진 방안은 경선 1부터 16, 위선은 1부터 20까지이다. 지도의 상단에는 백리척(百里尺)이 기재되어 있고, 정상기형 <동국지도>의 원도계열 사본에서 보이는 발문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산지와 수곡 우회처에서는 1척을 120~130리로 표현한다는 내용이다(山峽水曲迂回之處則一尺爲一百二十三里). 백리척은 여타 동국지도 계열의 지도와는 달리 열 칸으로 나누어 10리마다 표현하였다. 함경도의 행궁(行宮)은 적색의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온성(穩城)부터 회령(會寧)까지 두만강의 이북의 동(洞) 지명을 자세히 적었다.

7) <관서(關西)>

<관서>(그림 15)는 평안도 일대를 그린 지도이며, 평양(平壤)에 평안도의 감영이 설치되어 있다. 지도에 나타난 방안의 범위는 경선 21에서 36까지, 위선 8에서 21까지이다. 원도 계열의 사본들에 비해 압록강 북쪽의 지명들을 자세히 적었다. 이는 압록강 북쪽 지역에 대한 지리정보를 인식하여 지명으로 지리정보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안도 지역에 위치한 산성과 봉수 표시를 자세하게 표시하였다. 의주(義州)부터 삼화(三和)에 이르는 평안도의 해안선에는 봉수 표시가 자세하다.

8) <관남(關南)>

함경남도 일대를 그린 지도이다. 함흥(咸興)에 함경도의 감영 표시가 되어 있다. 지도의 여백에는 함경도와 호서를 나누어 그린 경위를 주기로 설명하고 있다. 함경도는 땅이 넓어 한 축에 그릴 수 없어 두 장으로 나누어 그리고, 호서(湖西)는 넓지 않아 한 축에 그렸다고 기록하였다. 관서(關西)의 동북면은 본 축에 다 그릴 수 없어 폐사군(廢四郡)을 반으로 나누어 관남의 원편에 그렸다고 서술하였다. <관남>에 그려진 경선은 10부터 24, 위선은 8부터 31까지이다(그림

16).

1787년에 장진(長津)이 도호부로 승격하는데, 관남(關南) 지도에 도호부로 포현되어 있으므로, 1787년 이후에 지도가 작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주부(厚州部)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아 1822년 이후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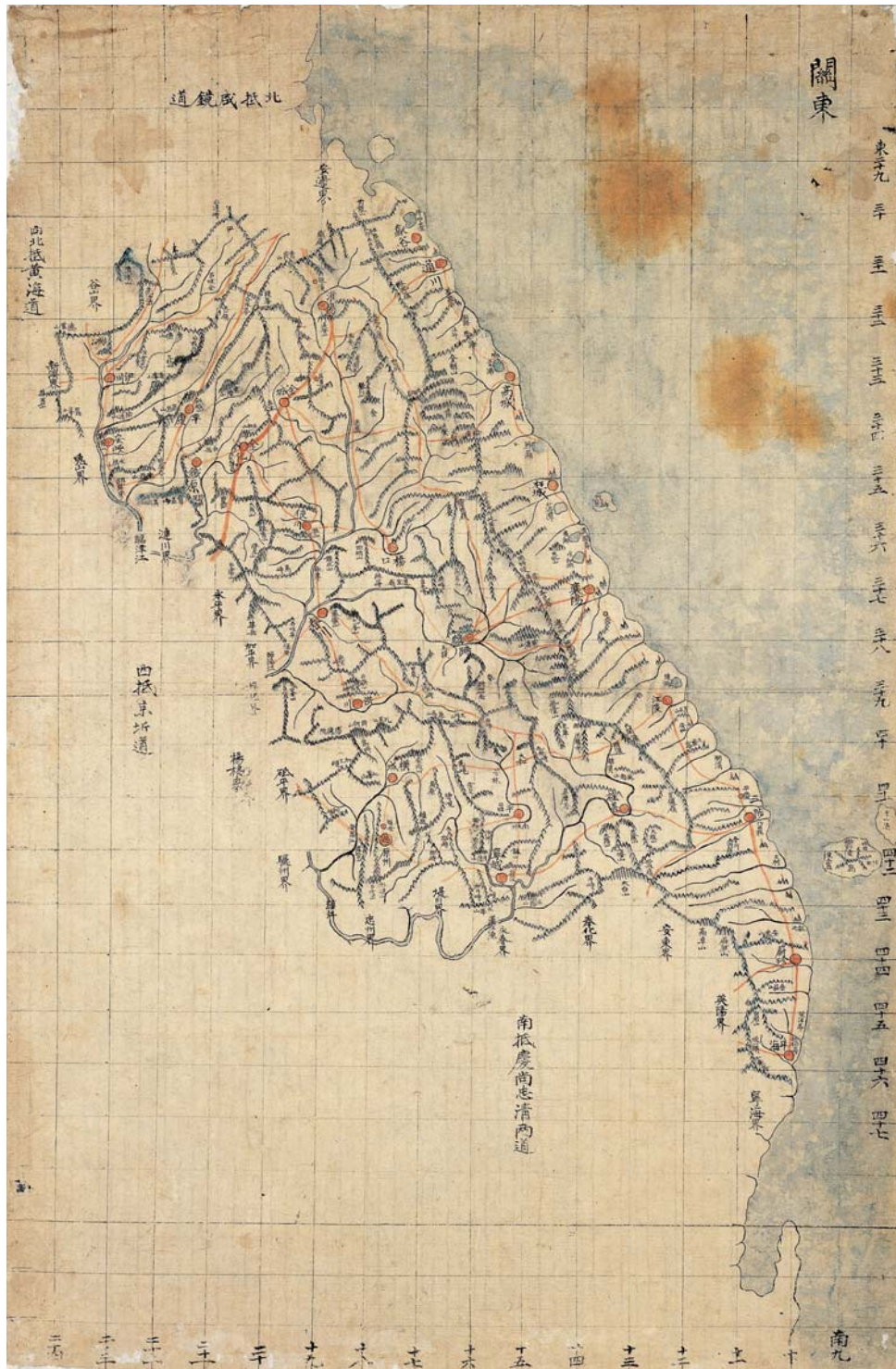


그림 13. 《동국지도》〈관동(關東)〉



그림 14. 《동국지도》 〈관북(關北)〉



그림 15. 《동국지도》〈관서(關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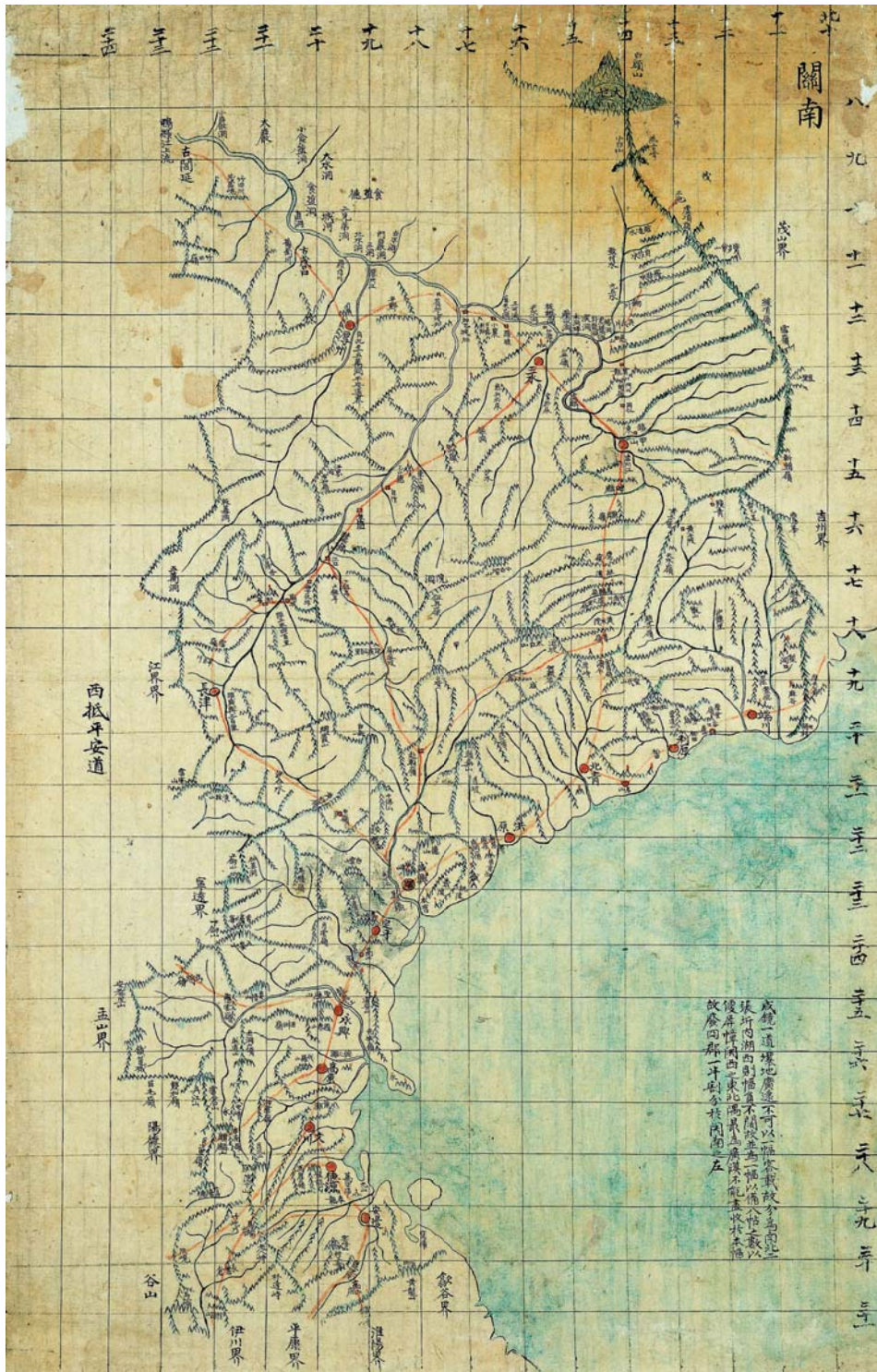


그림 16. 《동국지도》 <관남(關南)>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각 도별도를 살펴본 결과, 경상도 지도만 1735년에서 1767년 사이의 지리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경상도에 나타난 지명 외에 국토의 윤곽을 표현한 부분 및 지도의 형식을 살펴보았을 때 정상기형 원도 계열에 가깝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본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는 1700년대 중반에 제작된 원도 계열의 정상기형 《동국지도》를 저본으로 삼아 1830년대에 지도를 제작하였으며, 다른 지역의 경우 변화된 지리정보를 지도에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2. 방안식 《동국지도》의 도엽별 제작시기 추정

지도	제작시기	근거 지명
기호 (畿湖)	1823년 ~ 1866년	충청도 노성(魯城) 경기도 풍덕(豐德) 혁파
해서 (海西)	1824년 이전, 1834년 이후	해주(海州)에 감영 위치
호남 (湖南)	1842년 이전	남원(南原) 격포진(格浦鎭)
영남 (嶺南)	1735년 ~ 1767년	안음(安陰) 산음(山陰)
관남 (關南)	1822년 이후	후주부(厚州部) 설치

### 3.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계열

연구 대상인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가 정상기의 《동국지도》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정상기의 원도계열과 수정본 계열로 크게 나누며, 수정본 계열은 초기 수정본 계열·해주신본 계열·동역도 계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국공립 기관 및 각 대학의 박물관 및 도서관에 소장중인 정상기형 《동국지도》 유형은 표 3과 같다.

표 3. 정상기형 《동국지도》 사본의 소장과 계열 비교

원도계열	전도	1. 동국대지도 (중박, 德壽-004396-000, 보물 제1538호) 2. 조선전도(송, IA4482)
	전도 + 도별지도	1. 조선팔도지도(규, 奎12419) 2. 팔도지도(규, 奎10331) 3. 여지도(규, 古4709-78) 4. 이정표입팔도정도·전라도 (중박, M번-000115-000·M번-000115-001) 5. 대동지도(중도, 韓61-9) 6. 아동여지도(중도, 古朝61-48) 7. 좌해여도(중도, 古2702-16) 8. 조선전도(고박, D129) 9. 동국지도(성, 53)
	도별지도	1. 조선지도(규, 奎25200) 2. 팔도지도(규, 古4709-14) 3. 팔도지도(규, 古4709-23) 4. 해동지도(규, 古4709-61) 5. 좌해분도(규, 古4709-99) 6. 팔도지도(규, 古4709-48) 7. 좌해지도(규, 奎 12229) 8. 동국지도(중도, 韓61-12) 9. 팔도지도(중도, 韓61-17) 10. 동국팔역도(중도, 韓61-26) 11. 고한국전도(고박, 2520)

		12. 조선팔도지도(성, 73) 13. 지도(전)(송, IA4224) 14. 동국지도(송, IA6619) 15. 함경남도·평안도·황해도·함경북도 (송, IA4505~4508) 14. 함경북도·강원도·경기도부충청도·전라도·평안 도·황해도(송, IA4493·IA4498~4502) 15. 동국지도(역박, 서13150) 16. 팔도분도(역박, 서13167) 17. 여지도(역박, 서13168) 18. 조선지도(역박, 서13197) 19. 동국지도(역박, 서13216)
	도별지도 + 기타	1. 조선지도(중박, 新收-014799-000)
초기 수정본 계열	전도	1. 조선전도(송, IA6612)
	전도 + 도별지도	1. 해동여지도(중도, 한貴古朝61-35)
	도별지도	1. 여지도(규, 古4709-37) 2. 팔도분도(규, 古915.1-P173) 3. 팔도분도(역박, 서13169)
해주신본 계열	도별지도	1. 조선팔도지도(규, 古4709-54) 2. 동국팔로분지도(성, 65)
동역도·팔로총도 계열	전도	1. 팔로총도(규, 古枚912.51-P186)
	도별도	1. 동역도(규, 古4709-27)

주 : 소장처는 축약하여 표시하였다(국립중앙박물관 : 중박, 국립중앙도서관 : 중도, 서울역사박물관 :역박,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규,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 성, 고려대학교 박물관 : 고박,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송).

현전하는 정상기형 《동국지도》의 사본들의 유형은 주로 원도계열에 속하는 사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도별도로만 현전하고 있다. ‘도별지도+기타’로 분류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지도》는 도별도 외에 <사산금표도(四山禁標圖)>를 포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규장각 소장 정상기형 《동국지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가 어느 계열에 속하며, 특징이 무엇인지 살피고자한다.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는 경기도와 충청도를 한 장에 합쳐 그리고, 함경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어 그린 구성 체계 및 국토의 윤곽은 원도 계열을 따르고 있다. 중강진에서 만포로 이어지는 압록강의 유로 부분은 원도 계열의 사본에서 보이는 유로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완만하게 그려져 있다(그림 17).

그러나 변화된 지명을 수정하였으며 이전 원도 계열에서 나타났던 오류는 대부분 수정하였다. 제주도 정의현 서쪽이 호수로 표현되었던 원도 계열 사본의 오류를 만으로 표현하였으며 원도계열에서 섬으로 잘못 표시한 백야곶(白也串)을 수정하여 섬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그림 18·그림 19). 다만 충청도의 안면도(安眠島)는 태안반도의 일부로 표현되어 있다(그림 20).



그림 17. 《동국지도》 〈관서〉 부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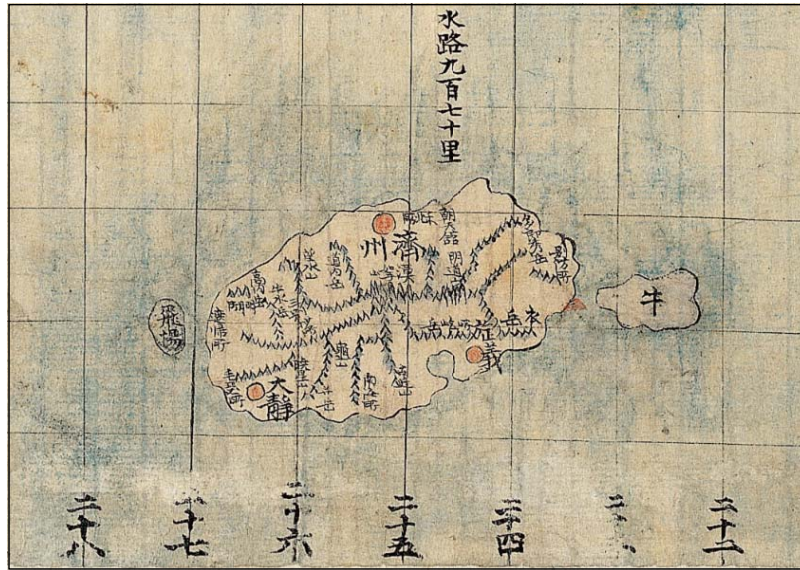


그림 18. 《동국지도》 〈호남〉 중 제주도 부분도



그림 19. 《동국지도》 〈호남〉 중 백야곶 부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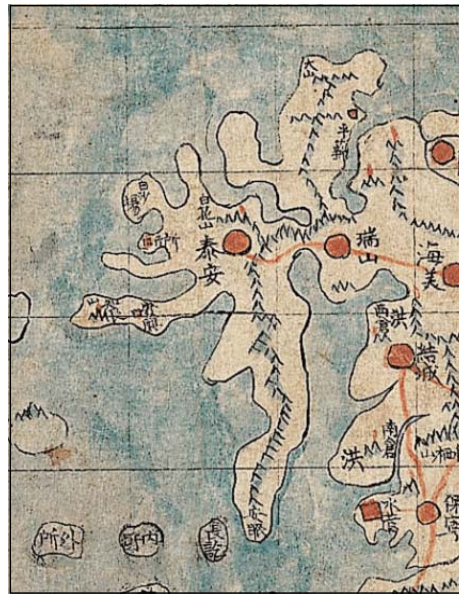


그림 20. 《동국지도》 〈기호〉 중 안면도 부분도

연구 대상인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각 도별도를 검토한 결과, 이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 계열 중 정상기형 원도 계열에 속하는 지도이다. 현전하는 정상기형 《동국지도》의 원도 계열 사본 중 백리척과 발문이 각각 실려 있고, 지도의 상태가 좋은 지도 중 규장각 소장의 《팔도지도(八道地圖)》(奎10331)를 대상으로 하여 《팔도지도》의 각 도별도에 표시된 읍치의 위치 및 해안선을 비교하였다.

《팔도지도》는 〈강원도(江原道)〉, 〈경기부충청도(京畿附忠淸道)〉, 〈경상도(慶尙道)〉, 〈전도(全圖)〉, 〈전라도(全羅道)〉, 〈평안도(平安道)〉, 〈함경남도(咸鏡南道)〉, 〈함경북도(咸鏡北道)〉, 〈황해도(黃海道)〉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도의 제작은 지명으로 추정하였을 경우 1776년에서 1787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 대상이 되는 지역은 한반도의 최북부인 함경북도와 조선시대 행정의 중심이었던 경기·충청, 그리고 해안선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전라도 부분으로 한하였다. 《팔도지도》의 〈경기부충청도(京畿附忠淸道)〉는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한 장에 담은 지도로, 경기도 38관과 충청도 54관을 포함한 총 92관의 군현이 그려져 있다.

《팔도지도》와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비교를 위하여 《팔도지도》의 윤곽을 녹색의 선으로 표현하고, 원으로 표시되었던 읍치를 녹색의 점으로 표시하여 《동국지도》와 구분하였다. 두 지도를 비교하여 각 지도에 표시된 읍치를 비교하였다.

《팔도지도》의 <경기부충청도>와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 <기호>의 음치를 비교하였을 경우 다음 그림 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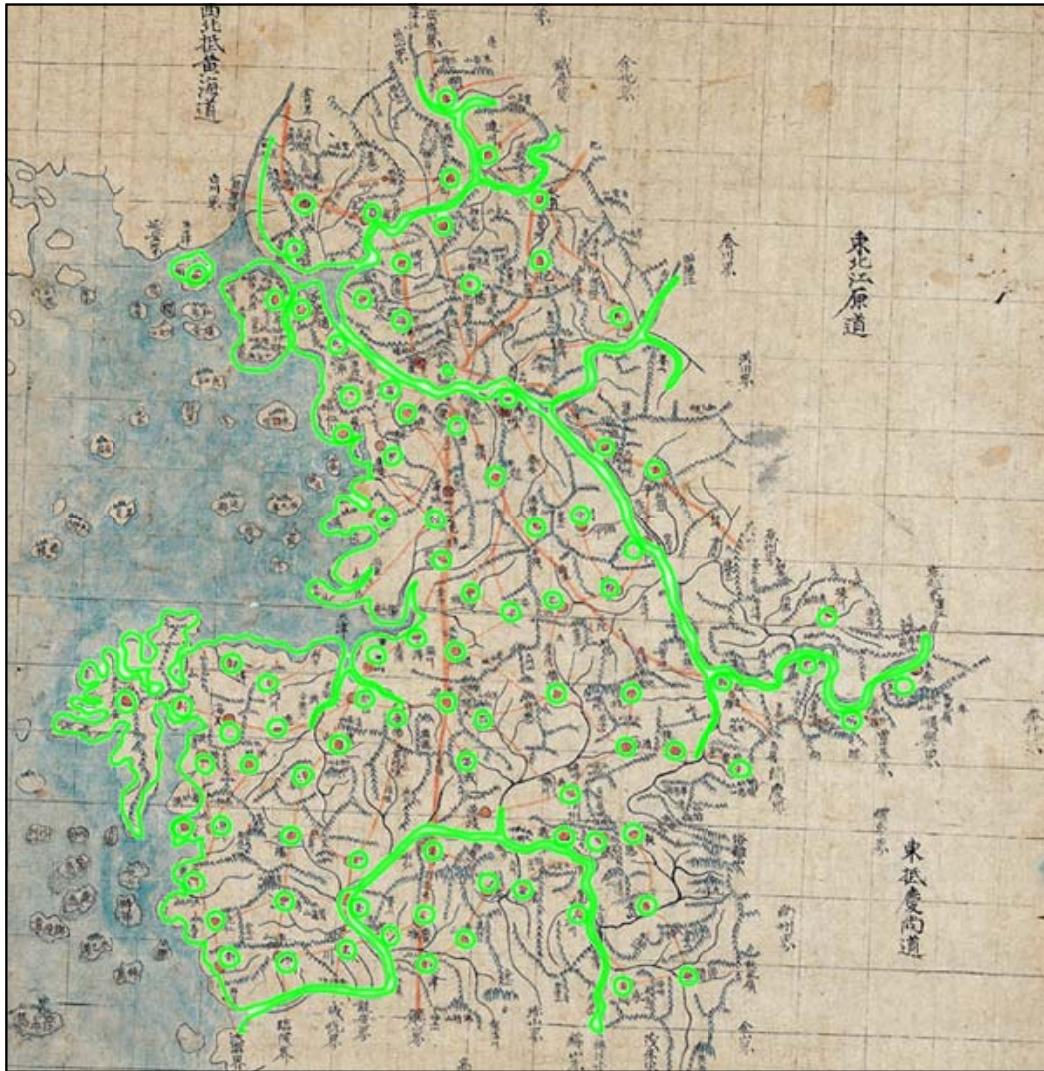


그림 21. 《팔도지도》(奎10331)와 《동국지도》의 비교 (경기·충청도)

지도를 비교한 결과, 대체적으로 읍치의 위치가 같으며, 해안선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팔도지도》에는 1823년 혁파된 풍덕(豐德)이 표시되어 있으나, 《동국지도》에는 개성으로 편입되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동국지도》는 화성(華城) 건설 이후 제작된 지도로, 《팔도지도》에 표시된 수원부(水原府)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외에 읍치 위치에 차이가 있는 군현은 가평(加平), 영춘(永春), 아산(牙山), 신창(新昌), 부여(扶餘), 석성(石城), 노성(魯城) 등이다.

경기도 및 충청도 일대에서 읍치의 위치를 비교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치율’은 《팔도지도》의 읍치 표현 안에 《동국지도》의 읍치 표현이 겹치는 정도를 나타내었다. 100의 경우 완전히 포함되게 표현한 위치를 말한다. 또한 《팔도지도》를 기준으로 동·서·남·북 중 어느 방향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표 4. 《동국지도》〈기호〉와 《팔도지도》(규장각, 奎10331)〈경기부충청도〉 읍치비교

일치율 읍치	100	99~50			49~1				0
		동	남	북	동	서	남	북	
	개성 공주 삭녕 장단 영평 적성 교동 포천 양주 금천 인천 양근 양성 평택 직산 서산 태안 결성 남포 한산 홍산 천안 목천 전의 황간 문의 연풍	강화 통진 파주 양지 진위 회덕 청주 괴산 음성	광주 용인 당진 홍주 임천 은진 예산	마전 연천 교하 온양	고양 김포 지평 회인 충주	남양 신창 부여	안성 면천 덕산 보령 대흥 청양 비인 연산 정산 옥천 청산 보은 청안 진천	부평 양천 해미 청풍 제천 단양	가평 이천 음죽 죽산 예산 서천 석성 노성 진잠 영동 과천 안산 여주 영춘

《팔도지도》와 《동국지도》의 경기도 및 충청도 일대 읍치를 비교한 결과, 《팔도지도》의 읍치 위치와 동일한 위치의 《동국지도》의 읍치들은 개성(開城), 공주(公州) 등이 있다. 가평(加平) 및 이천(利川) 등의 읍치는 《팔도지도》에 표시된 읍치와 거리 및 방향에 있어서 차이가 보이고 있다.

《팔도지도》의 <함경북도>는 함경북도 일대를 그린 지도이다. 《동국지도》의 <관북>과 비교한 결과, 경흥(鏡興)과 회령(會嶺)부분을 제외한 다른 읍치의 위치는 일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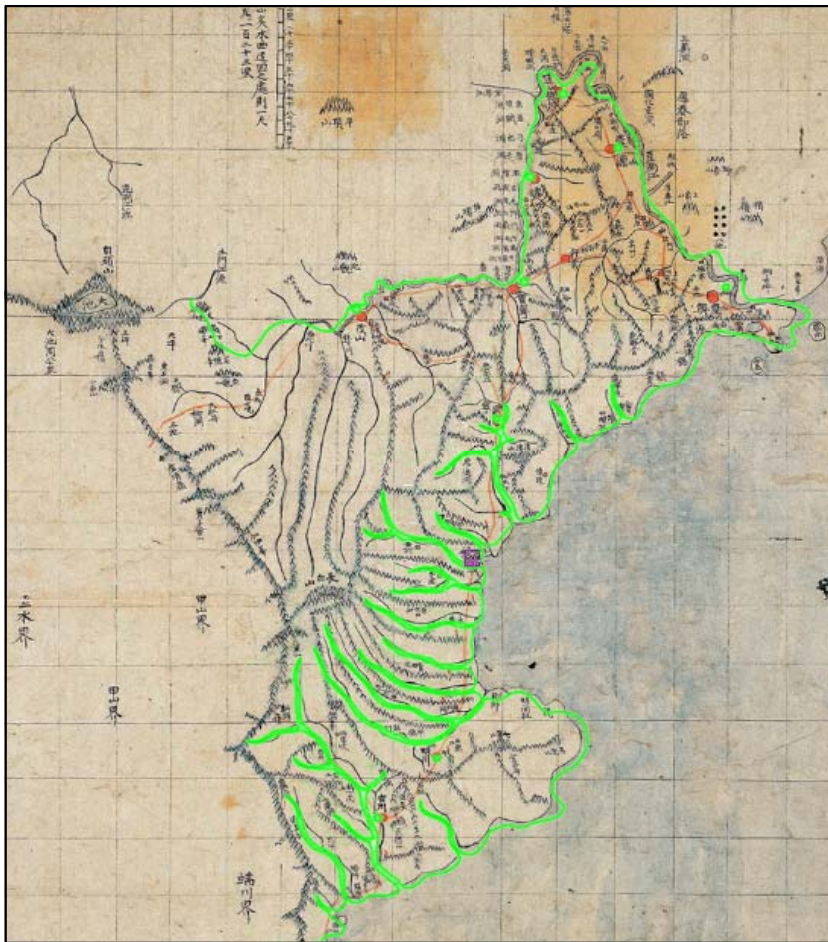


그림 22. 《팔도지도》(奎10331)와 《동국지도》의 비교 (함경북도)

《팔도지도》의 〈전라도〉를 같은 방식으로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비교하였다. 전라도 일대의 비교는 두 지도를 겹쳐, 읍치를 서로 다른 색인 청색과 적색으로 구분하였다. 용담(龍潭), 장수(長水), 진안(鎭安), 임실(任實), 순창(淳昌), 구례(求禮), 장성(長城), 영광(靈光), 진도(珍島) 등의 군현에서 읍치의 위치에 차이가 보였으며, 가장 큰 차이가 보인 곳은 광주(光州)였다. 전라우수영(全羅右水營)의 위치도 《동국지도》와 《팔도지도》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팔도지도》의 경우 《동국지도》에 비해 등산진(登山津)에 더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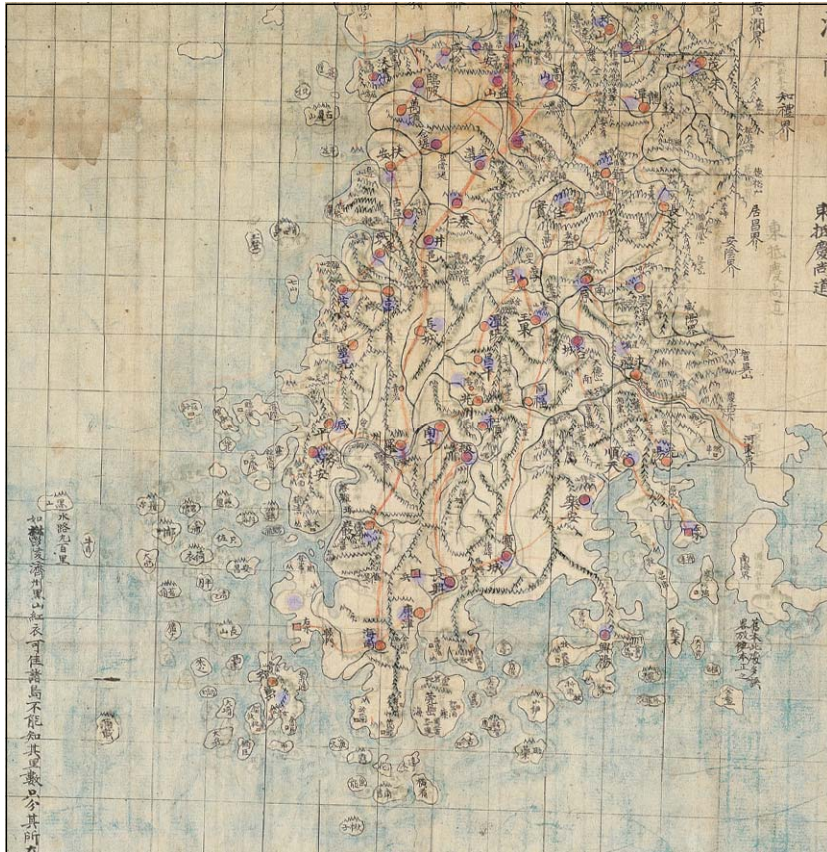


그림 23. 《팔도지도》(奎10331)와 《동국지도》의 비교 (전라도)

지금까지 방안식 도별지도인 《동국지도》 중 〈관북(關北)〉, 〈기호(畿湖)〉, 〈호남(湖南)〉 지도를 정상기형 원도계열 지도인 《팔도지도》의 각 도별도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읍치의 위치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같은 위치에 있으며 해안선의 표현 및 산줄기의 표현 중 공통되는 부분이 많았다.

오차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는 읍치의 위치 변화가 있었는지, 또는 정확한 거리 정보가 반영되어 수정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IV.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東國地圖)》의 방안 체계와 특징

연구 대상인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는 방안을 가진 동국지도 계열의 지도로 매우 보기 드문 지도이다. 정상기형 《동국지도》는 백리척(百里尺)으로 축척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 지도에는 백리척과 함께 방안이 그려져 있다. 지도는 동서 36개, 남북 72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안 하나의 크기는 약 40리를 표현하고 있다.

표 5.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 도별 방안체계

	동 - 서 (경선)			북 - 남 (위선)		
	방안 수치	방안 수	리	방안 수치	방안 수	리
관북 (關北)	1-16	15	600	1-20	19	760
관남 (關南)	10-24	14	560	8-31	23	920
관서 (關西)	21-36	15	600	8-32	24	960
해서 (海西)	22-36	14	560	29-40	11	440
기호 (畿湖)	14-29	15	600	34-50	16	640
관동 (關東)	9-24	15	600	29-47	18	720
영남 (嶺南)	6-21	15	600	42-60	18	720
호남 (湖南)	17-32	15	600	48-72	24	960

표 5와 같이 <해서>와 <관남> 지도를 제외한 모든 지도는 동서의 거리를 600리로 표현하고 있다.

그림 26은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를 각 경위선에 맞추었을 때 그려지는 전도(全圖)의 모습이다. 전도에서 나타나는 국토의 범위 및 해안선의 윤곽은 정상기형 원도계열에서 볼 수 있는 동국대전도(東國大全圖)의 모습과 유사하다.



그림 24. 《동국지도》를 연결한 모습

## 1.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와의 비교

현전하는 군현지도 중 방안이 표시되어 있으며, 방안에 숫자를 기록해 그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지도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古貴2107-36)이다. 이 지도책은 각 군현을 연결시켜 보기에 편리하고, 도별도로 합하여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재까지 《해동여지도》계통의 방안식 군현지도들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연구되었다.<sup>58)</sup> 연구 대상인 《동국지도(東國地圖)》 또한 방안 체계를 갖고 있는 정상기형 《동국지도》이다. 《대동여지도》로 발달해 가는 과정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연구된 바가 있는 《동국지도》로 본 연구를 통하여 《동국지도》가 《대동여지도》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東國地圖)》와 《해동여지도》의 방안의 체계를 비교하고, 전라도 일대의 해안선을 비교하였다.

### 1) 방안체계의 비교

《동국지도》는 한 방안의 간격이 약 40리로, 《해동여지도》에 그려진 방안 간격의 2배가 되는 지도이다. 《동국지도》에 40리 방안이 일률적으로 그려졌는지를 《해동여지도》와 비교하였다.

한 방안이 나타내는 거리를 살펴보기 위하여 《해동여지도》 군현지도들 방안의 크기를 모두 같게 수정한 뒤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해동여지도》를 겹쳐보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해동여지도》의 지도들은 군현이 위치한 방안 외에도 다른 모든 방안이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한 방안에 네 방안 씩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는 40리 방안을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58) 김기혁, 2007, “조선후기 방안식 군현지도의 발달 연구 : 『東國地圖 三』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19권 제1호, pp.21~34.

〈호남〉의 경우, 나주(羅州)를 중심으로 《해동여지도》와 겹쳐 본 결과는 그림 27과 같다.



그림 25. 《동국지도》 〈호남〉과 《해동여지도》(古貴2107-36) 비교

나주를 중심으로 하였을 때, 나주로부터 약 40리 떨어진 함평(咸平), 무안(務安)의 경우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해동여지도》에 표시된 읍치의 위치는 같았다. 그러나 담양(潭陽), 창평(昌平), 광주(光州), 옥과(玉果) 등의 군현은 두 지도 간 읍치를 표현하는 원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림 28은 《해동여지도》의 군현 지도 중 전라도 일대 군현 지도를 연결한 지도이다. 전라도 함평과 무안 부근의 해안선은 그림 28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6. 《해동여지도》(古貴2107-36) 전라도 일대 해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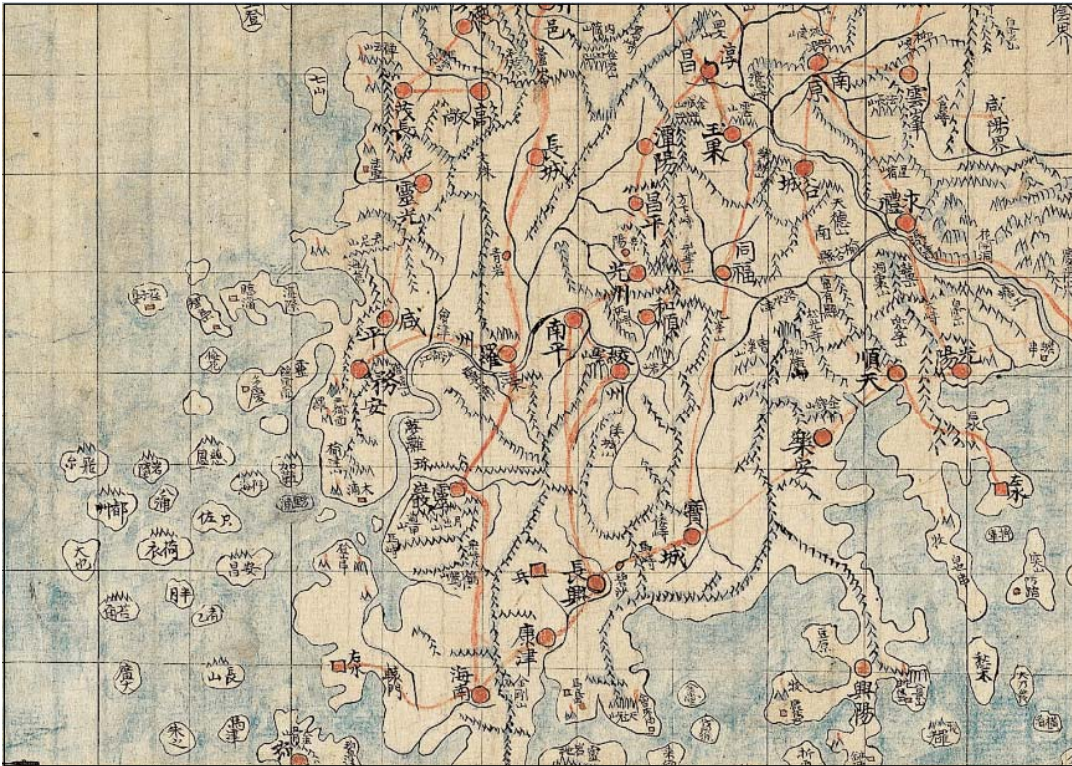


그림 27. 《동국지도》 〈호남〉 부분도

그림 28과 29를 비교하였을 때, 《해동여지도》와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차이는 함평과 무안 일대의 목포(木浦), 다경포(多慶浦), 임치(臨淄), 해제(海際) 등의 지역이다.

《해동여지도》와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비교 결과,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는 40리 간격의 방안 체계를 가진 지도이나, 20리 방안식 군현지도의 윤곽 및 해안선 일대의 표현이 상이한 점을 확인하였다.

## 2.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와의 비교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김정호에 의해 제작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대축척 조선전도이다. 지도는 총 22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첩을 남북으로 이어 붙일 경우 우리나라 전도(全圖)가 완성되는 체계를 갖고 있다. 이 지도 또한 방안식 지도로, 지도 한 면은 동서 80리, 남북 120리의 범위를 싣고 있다. 지도에 나타난 국토의 범위는 남북 2,640리, 동서 1,520리이나, 남북은 압축되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대동여지도》에서는 산·천의 줄기 체계를 기본으로 지형을 그리고, 범례를 통하여 인문지리 정보를 표시하였다. 《대동여지도》의 모든 산은 백두대간(白頭大幹)으로부터 갈라져 나오는 크고 작은 산줄기에 연결되어 있다. 산줄기는 크기와 중요도에 따라 그 두께를 정하였다. 물줄기의 경우 산의 골짜기에서부터 물줄기의 시작을 찾을 수 있으며, 어디에서 모여 내가 되고 다시 강이 되어 바다로 흘러드는지를 읽을 수 있다. 인문 지리 정보는 범례를 기준 삼아 기호로 감영(監營), 역(驛), 창고(倉庫), 진보(鎭堡), 봉수(烽燧) 등을 표시하였다. 지도에는 자연 지형의 표현뿐만 아니라 행정·군사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상기형 《동국지도》는 조선 후기 대축척 조선전도인 《대동여지도》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는 전체적인 내용 및 방안 체계를 살펴보았을 때, 정상기형 《동국지도》를 따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연구 대상인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대동여지도》의 읍치의 위치 및 해안선의 윤곽 차원에서 비교해보았다.

비교 대상 지도인 《대동여지도》는 성신여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861년 신유본(辛酉本) 《대동여지도》이다.

그림 30은 《대동여지도》 18첩과 19첩의 14·15판으로,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 〈호남〉과의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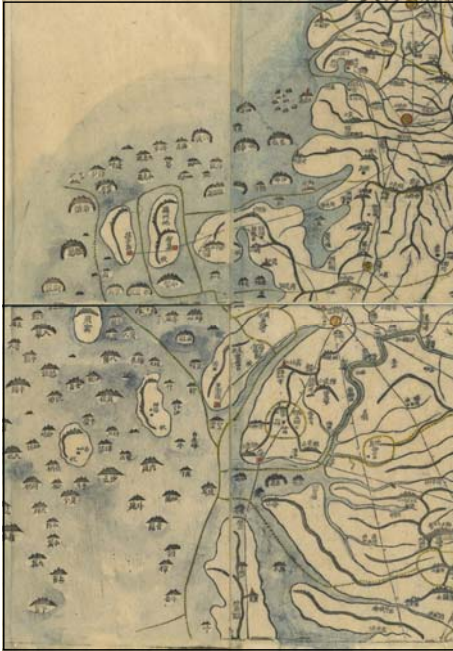


그림 28. 《대동여지도》(47)  
제18첩, 제19첩 부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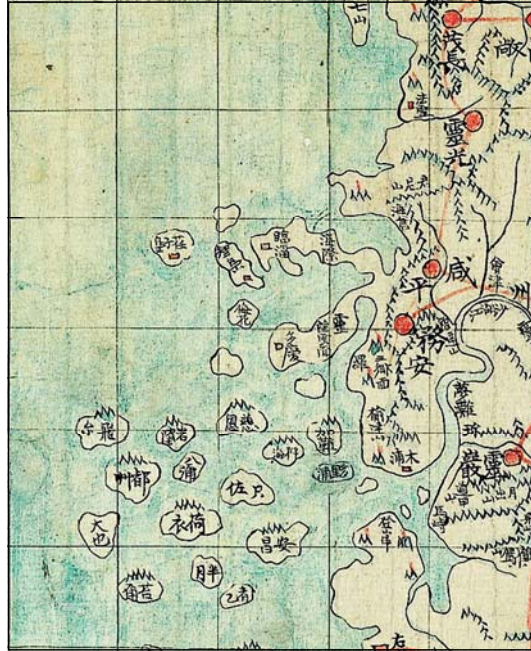


그림 29. 《동국지도》중  
〈호남〉 부분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무장(茂長), 영광(靈光), 함평(咸平), 무안(務安) 일대와 주변의 도서(島嶼)이다. 해안선의 윤곽에서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대동여지도》간 차이가 보이며, 《대동여지도》는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에 비하여 도서 정보가 상세히 그려졌다. 《해동여지도》와 마찬가지로 임치(臨淄), 해제(海際) 곳의 모양에서 차이가 있으며, 무안에서 뻗어 나가는 곳의 방향성도 상이하다.

## V. 국토의 윤곽 비교

본 연구에서는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정상기형 《동국지도》의 원도계열인 《팔도지도》, 방안식 군현지도인 《해동여지도》 및 《대동여지도》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군현의 위치 등 지도에 나타난 지리 정보 등은 정상기형 《동국지도》의 원도계열 지도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각 비교 대상인 지도들의 국토 윤곽 비교를 통하여, 지리적인 사상 외에도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비교의 대상 지도인 규장각 소장 《팔도지도》 및 성신여대박물관 소장 《대동여지도》의 윤곽을 살펴본 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여(東輿)》(M127)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비교 대상이 되는 지도들과의 국토의 윤곽 및 해안선의 비교 등을 통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가 어느 지도의 계통에 더 가까운지를 국토의 윤곽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규장각 소장 《팔도지도》와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팔도지도》에 포함된 〈전도〉의 국토 윤곽과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 전도의 국토 윤곽을 대상으로 하였다. 《팔도지도》의 〈전도〉에는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분이 일부 훼손되어 그 윤곽을 잘 알아볼 수 없는 지역이 있어 점선으로 처리하였다.

그림 32는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팔도지도》의 윤곽을 비교한 결과이다. 녹색의 선은 《팔도지도》의 윤곽을 나타냈으며, 적색의 선은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윤곽을 나타내었다.

비교 결과,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는 정상기형 《동국지도》 원도계열에 속하는 《팔도지도》의 전도와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또한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가 원도에 더 가까운 윤곽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평안도 압록강 상류 지역과 함경도 부근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국토의 윤곽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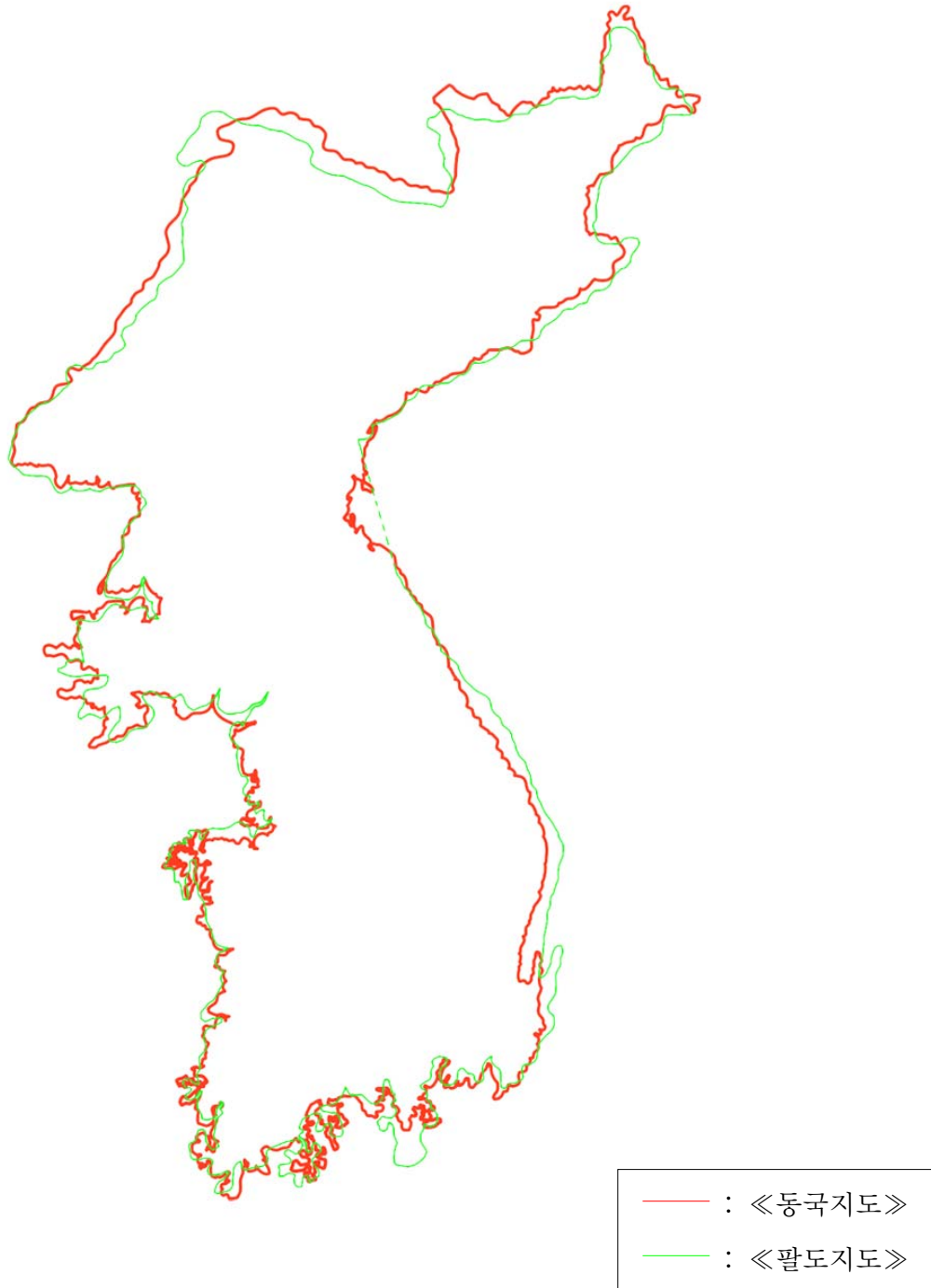


그림 30.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팔도지도》의 국토 윤곽 비교

주 : 《팔도지도》의 훼손된 부분은 윤곽을 비교하기 어려워 점선으로 처리하였다.

대축척 조선 전도와 비교는 성신여대박물관 소장 《대동여지도》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여(東輿)》(M127)로 선정하였다. 《동여》는 20리 간격의 방안을 표현한 필사본 대축척 조선전도로, 조선 후기의 방안식 군현지도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지도로 추측된다. 이 지도에 나타난 20리 방안 체계는 본 연구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해동여지도》(古貴2702-36)의 방안 체계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59)</sup> 따라서 《동여》는 조선 후기 조선전도의 발달상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도로 생각하여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의 국토 윤곽 비교를 시도하였다.

적색의 선은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국토 윤곽을, 흑색의 선은 《동여》, 그리고 청색의 선은 《대동여지도》의 윤곽을 표현하였다.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20리 방안식 군현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라 예상되는 《동여》의 국토 윤곽을 비교하고 방안식 도별 지도와 방안식 군현지도 및 방안식 조선전도와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대동여지도》의 윤곽을 비교하여 조선 후기 대축척 조선 전도들과 방안식 도별지도의 국토 형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

59) 장상훈, 2007, “조선후기 대축척 조선전도의 발달과 〈동여〉”, 문화역사지리 제19권 제1호, pp.48~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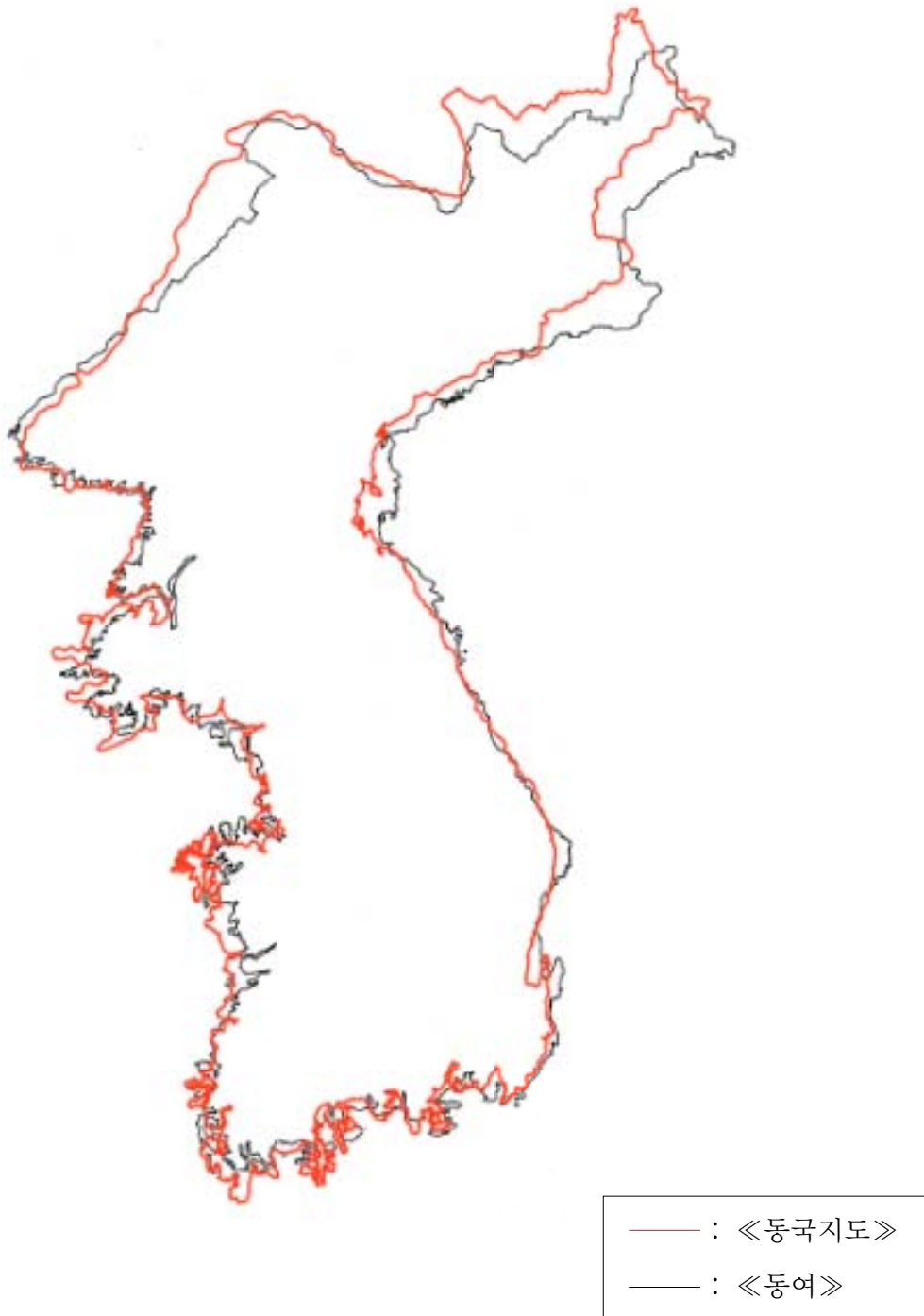


그림 31.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동여》의 국토 윤곽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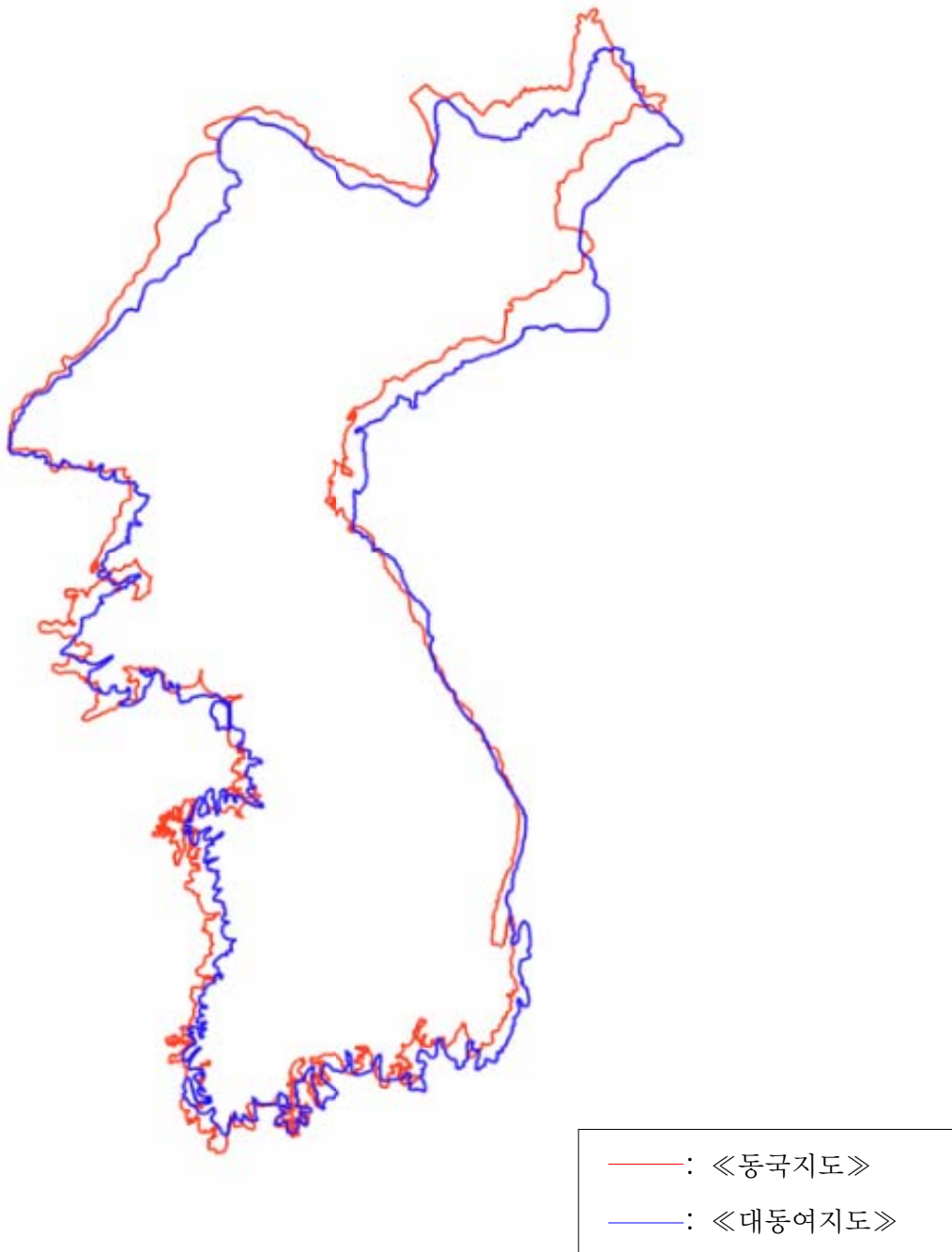


그림 32.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대동여지도》의 국토 윤곽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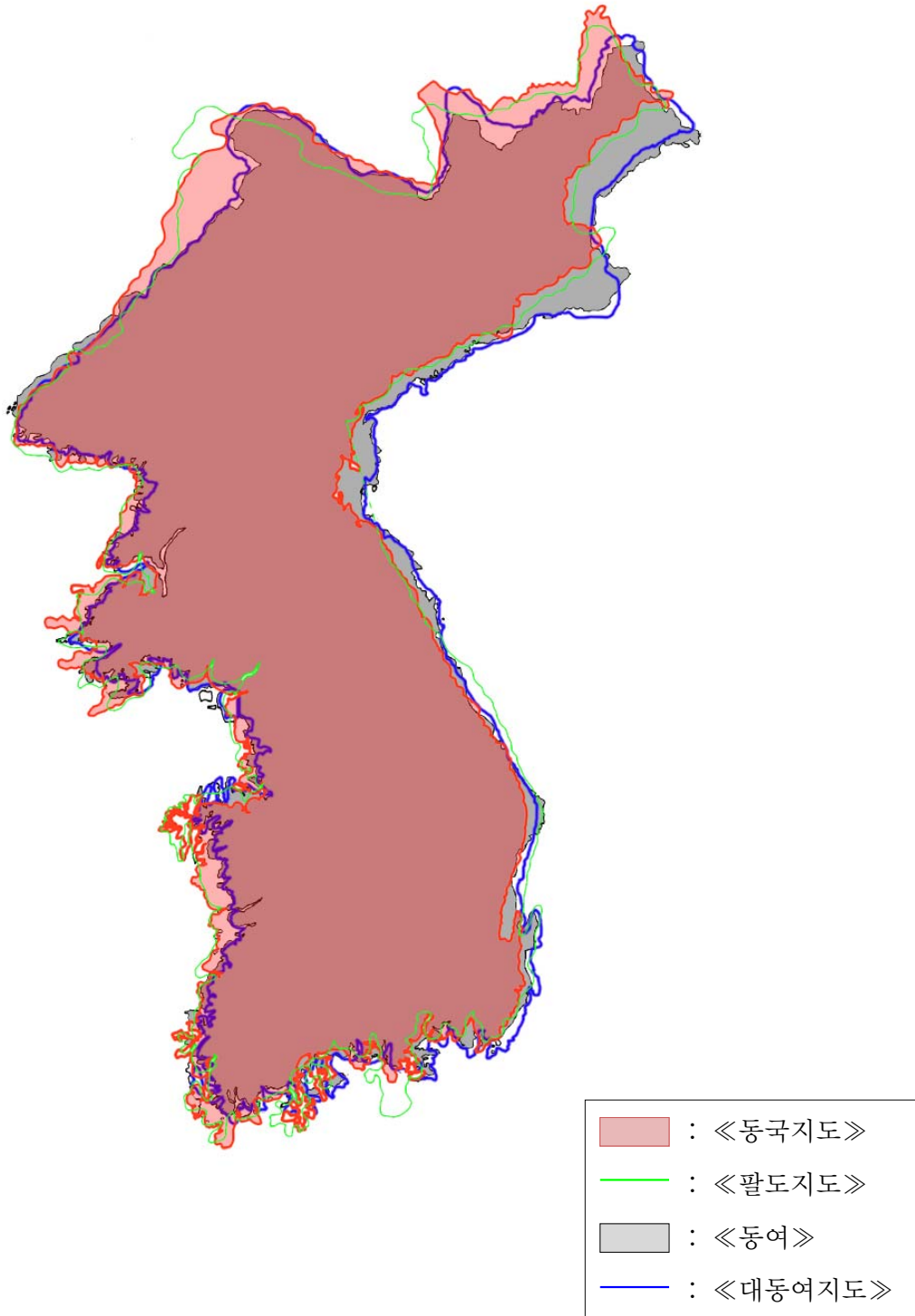


그림 33. 《동국지도》, 《팔도지도》, 《동여》, 《대동여지도》의 국토 윤곽 비교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동여》와의 비교에서는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북부지방은 동북쪽을 향해 올라간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삼척과 평해를 잇는 일대에서도 해안선 윤곽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동국지도》의 해안선은 완만한데 비해, 《동여》에서는 울진 일대가 《동국지도》와는 다른 해안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축척 조선전도인 《대동여지도》의 국토 윤곽을 비교한 결과, 대체적으로 《동국지도》유형과는 다른 윤곽을 나타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압록강 유로는 《대동여지도》에 비하여 완만하게 그려져 있고, 함경북도 명천(明川)의 마유산(馬乳山) 일대 해안선 윤곽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의 북부지방이 동북쪽으로 올라가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비교 대상으로 선정한 네 지도의 윤곽을 모두 합쳐 본 결과 지도 윤곽의 계열이 더 뚜렷이 나타났다. 그림 35에서 볼 수 있듯이 《동여》와 《대동여지도》의 국토 윤곽 표현은 《동국지도》나 《팔도지도》와 상이함을 볼 수 있다.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정상기형 《동국지도》 및 대축척 조선전도와 국토의 윤곽을 비교한 결과,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는 정상기형 《동국지도》의 국토 윤곽 표현과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방안식 《동국지도》는 정상기형 《동국지도》의 계열을 따르며, 국토의 윤곽 표현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동여지도》의 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나, 대축척 조선전도의 제작에 기여하였음은 추정할 수 있다.

## Ⅵ. 결 론

본 연구는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정상기형 《동국지도》 중 지도 위에 방안이 그려진 《동국지도》(서13150)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지도를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라 명명하였다. 이 지도는 정상기형 《동국지도》의 원도 계열에 속하며, 지도에서 2.7cm 간격의 방안이 실제 40리를 나타내고 있다. 지명의 변화를 고찰한 결과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는 183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지도에는 산천 등의 자연적인 지리 정보뿐만 아니라 봉수(烽燧), 산성(山城), 역(驛) 등과 같은 군사·행정적인 정보가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팔도(八道)에 일정한 기호로 그려져 있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정보를 알기 쉽게 하였다. 각 도별 지도의 여백에는 정상기형 《동국지도》 원도계열 사본들 중 함경북도 도별도 여백에 기록된 발문(跋文) 및 기타 주기(註記) 사항을 기록하였다. 백리척(百里尺)에 대한 주기 및 호남의 도서(島嶼) 지방에 대한 주기들은 각각 〈관북(關北)〉과 〈호남(湖南)〉 도별도에 기록하였다.

연구 대상인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를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팔도지도》에 나타난 읍치의 위치 및 해안선 윤곽을 비교하여 정상기형 《동국지도》 중 원도계열에 속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에 표현된 방안체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 및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대동여지도》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동여지도》는 19세기 초에 제작된 방안식 군현지도집으로 20리 간격의 방안을 갖는 지도이다. 방안의 외곽에 숫자를 기입하여 각 군현간의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도별도나 전도로 이어 볼 경우에 편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해동여지도》의 경기도·충청도·전라도 일대의 읍치를 도별도 형태로 이어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와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해동여지도》와 《동국지도》의 군현 읍치의 위치나 국토의 윤곽 표현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상기형 《동국지도》, 대축척 조선전도인 《대

동여지도》 및 《동여》와의 국토 윤곽 비교를 통하여,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는 지도에 담긴 지리 정보 외에 국토 윤곽을 나타내는 점에 있어서도 정상기형 《동국지도》를 바탕으로 하여 제작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방안식 도별 《동국지도》는 정상기형 《동국지도》의 계열을 따르는 지도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동여지도》 및 《대동여지도》 계열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았다. 정상기형 《동국지도》가 《대동여지도》 제작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본 연구를 통하여 《동국지도》는 《대동여지도》 제작에 참고자료로 사용되었을 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참 고 문 헌

## 1. 지도 및 고문헌

서울역사박물관, 《동국지도(東國地圖)》(서13150)

고려대학교 박물관, 《조선전도(朝鮮全圖)》(D129)

국립중앙도서관,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古貴2107-3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팔도지도(八道地圖)》(奎1033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좌해지도(左海地圖)》(奎1222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팔도지도(八道地圖)》(古軸4709-48)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67)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동국지도(東國地圖)》(53)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동국팔로분지도(東國八路分地圖)》(65)

『英祖實錄』

『正祖實錄』

『純祖實錄』

『承政院日記』

『大東地志』

『星湖僊說』

## 2. 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2006, 동여(東輿)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역사자료총서 V.  
\_\_\_\_\_, 2007, 조선도(朝鮮圖) - 국립중앙박물관 조사 국외역사자료총서 -1.
- 국립중앙도서관, 2005, 해동여지도 I, II, III.
- 국립지리원, 2001,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연구보고서.
- 국립지리원, 2001, 고산자 김정호 기념사업 자료집.
- 국토해양부 국립지리정보원, 2009, 한국지도학발달사.
- 김기혁, 2005, “조선 후기 군현지도의 유형 연구 -동래부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제40권 제1호, pp.1~26.
- \_\_\_\_\_, 2007, “우리나라 고지도의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13권 제3호, pp.301~320.
- \_\_\_\_\_, 2007, “조선후기 방안식 군현지도의 발달 연구 : 『東國地圖 三』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제19권 제2호, pp.19~36.
- 문화재청, 2009, 한국의 옛 지도.
- 서울역사박물관, 2006, 이찬 기증 우리 옛지도.
-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2013, 옛지도 속의 하늘과 땅.
- 양보경, 1991, “古山子 地志의 現代的 評價”, 地理學 제26권 제2호, pp.164~170.
- \_\_\_\_\_, 1992, “18세기 비변사지도의 고찰 -규장각소장 도별 군현지도집을 중심으로-”, 규장각 제15권, pp.93~123.
- \_\_\_\_\_, 1995a, “『大東輿地圖』를 만들기까지”, 한국사시민강좌 제16권, pp.84~121.
- \_\_\_\_\_, 1995b, “조선후기 군현지도의 발달”, 문화역사지리 제7권, pp.53~63.

- 오상학, 1994, 정상기의 동국지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기봉, 2008, “정상기의 《동국지도》 수정본 계열의 제작 과정에 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20권 제1호, pp.56~88.
- \_\_\_\_\_, 2007, “정상기의 『東國地圖』 제작 과정에 관한 연구 : 『동국여지승람』 과 『해동지도』 계통의 위치 정보를 중심으로”, 규장각 제30권, pp.95~125.
- 이상태, 1991, 한국 고지도 발달사, 해안.
- 이 찬, 1981, “한국고지도에서의 좌표체계”, 한국과학사학회지 제3권 제1호, pp.3~11.
- \_\_\_\_\_,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 장상훈, 2007, 조선후기 대축척 조선전도의 발달과 〈東興〉, 문화역사지리 제19권 제1호, pp.37~57.
- \_\_\_\_\_, 2008, 조선후기 분첩식 대축척 전국지도의 제작과 『朝鮮圖』, 문화역사지리 제20권 제2호, pp.79~94.

### 3. 웹사이트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nl/>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www.e-kyujanggak.sun.ac.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 ABSTRACT

## A Study On «Dongguk-jido» Adapted Grid System

Lee, Young Sun

Major in Geography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the late Joseon period, Jeong Sanggi-style «Dongguk-jido» are accurate maps used scale, and able to see the distance between places with creative vertical bar scale named “Baeklicheok(百里尺)”. Jeong Sanggi-style «Dongguk-jido» are constitute of the maps of the general map of Joseon and each of eight provinces adapted large-scale, and promoted the development of map of Joseon during the era. In the meantime, «Dongguk-jido» had been found out to have an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cartography of Joseon, but most studies had not concerned about superficial features clearly. «Dongguk-jido(東國地圖)», subject of this study, is Jeong Sanggi-style «Dongguk-jido». This map is the Jeong Sanggi-style «Dongguk-jido» only having grid system and possesses by Seoul Museum of History.

In this study, I will give a name Jeong Sanggi-style «Dongguk-jido» which has the grid system “«Dongguk-jido» adapted grid system”. «Dongguk-jido» adapted grid system belongs to the original Jeong Sanggi-style «Dongguk-jido». This map has grids of 2.7cm intervals, and one grid shows 40 li(里). «Dongguk-jido»

adapted grid system are estimated that made in 1830s. Geographical informations on this map show fixed symbols in the same way on eight provinces(八道).

In this study, I found the genealogy of 《Dongguk-jido》 adapted grid system by comparing 《Paldo-jido(八道地圖)》 possessed b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Grid system maps are generally made as county-maps in the late Joseon period. Several scholars researched several grid system maps made in late Joseon period. And their studies are that county-maps with grid system are on the development of 《Daedongyeo-jido》.

To analyze the grid system of 《Dongguk-jido》, 《Haedongyeo-jido(海東輿地圖)》 possess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Daedongyeo-jido(大東輿地圖)》 possessed by Sungshin Women's University Museum were selected.

《Haedongyeo-jido》 are grid system county maps and have grids of 20 li(里) intervals. 《Haedongyeo-jido》 made in early 19th century. Grid system using the numerical enables readers to understand the location of counties easily and can make map of Joseon or map of province. Based on these features, I combined several county maps which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Chungcheong province and Jeolla province. And then compare 《Haedongyeo-jido》 with 《Dongguk-jido》 adapted grid system.

The outcome shows that 《Haedongyeo-jido》 and 《Dongguk-jido》 have differences in the location of counties and outline of Korea. When compared with 《Daedongyeo-jido》, it has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 shoreline of the country.

Based on these facts , I attempted compare the shape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maps. For these comparisons, «Paldo-jido(八道地圖)», «Daedongyeo-jido» and «Dongyeo» possessed by National Museum of Korea were selected. It is similar to the shape of the Korean peninsula of the «Paldo-jido» and «Dongguk-jido» adapted grid system. But there were difference with «Dongyeo», «Daedongyeo-jido».

I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Dongguk-jido» adapted grid system. and «Haedongyeo-jido», «Daedongyeo-jido». Some previous researches estimated that Jeong Sanggi-style «Dongguk-jido» had a major impact on «Daedongyeo-jido». But through this study,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at «Dongguk-jido» have a direct impact on «Daedongyeo-jido».